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2차년도

태평4동 '한울신문 · 영상뉴스' 프로젝트

꿈꾸는 아이들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2차년도

태평4동 '한울신문 · 영상뉴스' 프로젝트

꿈꾸는 아이들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E FOUNDATION

THE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2차년도

'한울신문 · 영상뉴스' 프로젝트

꿈꾸는 아이들

발행인 | 이대엽, 이종덕
편집인 | 노재천
기획총괄 | 박승현
기획진행 | 이종필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www.snart.or.kr
발행일 | 2008. 1.

사진 글 | 박연우, 한울신문 기자단
디자인 | 박영실
인쇄 | 디자인 좋은날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2차년도

태평4동 '한울신문 · 영상뉴스' 프로젝트

꿈꾸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 | 프로젝트 개요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을 위한 문화정책 사업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을 해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성남시 45개동의 특색을 골목길, 공단, 아파트, 시장, 상가 등 5개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5개 동네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동네의 색깔을 창조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태평4동은 성남에서 처음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과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이 진행되었다. 주민참여, 지속적인 지역문화 조성이 특징이며, 향후 성남시 문화마을의 초석이 될 수 있고, 주민 스스로 창작하고 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태평4동 프로젝트 '태평동에서 동락태평하세'는 2007년 마을 프로젝트의 지속사업으로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골목길 유형으로 실시되었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통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 어린이들이 기자로 참여하고 마을이 하나 될 수 있는 '한울신문'을 창간하였다.

이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이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많은 시민들이 마을신문을 통해 소통하고, 마을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어린이 기자단이 만드는 동네신문 및 영상뉴스를 통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하고 뛰노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공예술로 마을에 대한 애정이 확대될 것이다. 또 아동들에 대한 교육적 효

과와 태평4동만의 자랑거리인 어린이기자단과 마을 신문, 뉴스를 통한 삶의 질도 확대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7년 7월에 본격 가동되었다. 마을에 있는 금빛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문과 영상 두 부분에 대한 기자단 모집을 시작으로 8월부터 매주 1회 2시간씩 이론교육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하였다. '한울신문'은 9월호 창간호를 계기로 12월호까지 4회에 걸쳐 신문을 제작하였고, '한울뉴스'는 4개의 영상뉴스와 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신문의 특성상 편집과 구성을 도와줄 선생님이 어린이 기자와 함께 신문을 발간하였는데, 향후 취재와 편집, 구성 등을 어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마을신문 발간으로 순수한 마음의 마을 어린이들이 태평4동만의 특색 있는 문화마을을 만들어갈 것이다.

태평4동의 프로젝트가 '꿈꾸는 아이들'을 통해 주민 모두의 마음을 잇는 동락태평(同樂太平)의 문화공동체로 꽃피워 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은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견,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향기 있는 문화도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남문화재단

한울신문

02 프로젝트 개요
04 차례
06 포토에세이
14 진행과정

태평4동 한울신문 기자단 활동
신문이 나오기까지
20 강의원고
42 첫 모임
44 카페를 만들었어요
46 편집장 임명
47 선생님, 한 시간 더 앞당겨요
48 이제 아이들은 기자다

한울신문 1호
62 선생님, 큰일났어요
65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한울신문 2호
76 발족식 일정잡기
77 독자칼럼
78 단청슈퍼
79 발족식
80 동네에서 문화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도시
82 '둔촌사당' 취재 날
83 신문을 구겨놨어요

한울신문 3호
94 2기 새내기 기자들과 한입이와 한별이
95 기자이기에 누리는 특별한 혜택
96 3호 발간

한울신문 4호

108 4호 편집회의
110 4호 교정 보던 날
111 학부모 간담회
112 '꿈꾸는 아이들'

한울영상뉴스

태평4동 한울영상뉴스 기자단 활동

116 아이들과 낯선 첫 만남
117 첫 번째 교육! 사진으로 소통하기
118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작은 에피소드
119 캠코더, 쉽게 다루기
120 난생 처음 카메라를 잡다
121 영상읽기와 뉴스보기, 뉴스란 이런 거야
122 인터뷰 실습
123 야외촬영에 도전하다
124 레디~ 액션(1)
126 레디~ 액션(2)
128 레디~ 액션(3)
130 레디~ 액션(4)

나가기

나가기

134 기자들의 한 마디
137 한울신문 영상뉴스 설문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다.

7,183세대의 18,178명이 모여 사는 태평4동, 그곳엔

18,178가지의 사람 이야기가 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COZI
&
HOF
여수식당

이제는 손을 잡고 소통하고 싶다.

진행과정

4	5	6	7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2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2007 동네프로젝트 지역선정 및 동단위 주민축제 지원사업 공모 (2007.5.4~5.17)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설명회 (5.10)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2차년도사업계획 확정 (5.22)	프로젝트 기획단 구성 김성수, 박연우, 박영실, 우장순	신문, 영상 기획팀 회의

		8	9
한울신문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강의 (8월 3일~9월 8일) 제호 결정 (8월 11일) 한울신문 카페 개설 (8월 11일), 한울신문 카페스텝 – 전은지, 오시영, 안혜빈 1호 1차 편집회의 (8월 25일)	1호 2차 편집회의 (9월 1일) 1호 원고 마감 (9월 15일) 1호 교정 (9월 22일) 1호 발간 및 배부 (9월 27일) 2호 1차편집회의 (9월 29일)
영상뉴스		오리엔테이션 (8월 3일) 영상뉴스 제작을 위한 기초교육 (12강), (8월 7일~27일) 자체 뉴스 제작 실습	

한울신문 기자단 창단 인원

서선학, 배상지, 신은지, 박예은, 김은하, 김귀현, 문소희, 오시영, 전은지, 전지혜, 안원모, 안혜빈

2008년 1월 현재 인원

전은지, 김은하, 김귀현, 오시영, 전지혜, 안혜빈, 김승민, 오한홍, 조은샘, 이지원, 권다솜

영상뉴스 기자단 창단 인원

이주령, 홍승우, 이영진, 김민지, 김한아, 송채연, 이환, 정준, 조희원

2008년 1월 현재 인원

이주령, 김민지, 김한아, 송채연, 정준, 이환, 조희원, 이은지

10	11	12
2호 2차 편집회의 (10월 6일) 한울신문과 영상팀 '한울뉴스' 발족식 (10월 9일) 2호 원고마감 (10월 19일) 2호 원고 교정 (10월 20일) 2호 교정 (10월 22일) 2호 발간 및 배부 (10월 27일) 3호 1차 편집회의 (10월 27일)	3호 2차 편집회의 (11월 2일) 3호 원고마감 (11월 17일) 3호 교정 (11월 24일) 3호 발간 및 배부 (11월 27일)	한울신문 · 영상뉴스 기자단 학부모 간담회 및 발표회 (12월 2일) 4호 2차 편집회의 (12월 8일) 4호 원고 마감 (12월 19일) 4호 교정 (12월 22일) 4호 발간 (12월 27일) 전체 영상뉴스 재편집 작업+공익광고 제작기획 (12월)
첫 번째 영상뉴스 제작 (10월 8일) 촬영 결과물을 활용한 영상편집교육 진행, 결과물 제작 및 상영회 (10월 9일) 두 번째 영상뉴스 제작	세 번째 영상뉴스 제작 (11월) 네 번째 영상뉴스 제작	전체 영상뉴스 재편집 작업+공익광고 제작기획 (12월)

KIM SUNG SOO 2008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태평4동 한울신문 기자단 활동

신문이 나오기까지

한울신문 1호

한울신문 2호

한울신문 3호

한울신문 4호

신문이 나오기까지

강의원고
첫 모임 | 카페를 만들었어요
편집장 임명
선생님, 한 시간 더 앞당겨요
이제 아이들은 기자다

환영 모아 허걸 유점

강의원고

1. 기사와 기자, 편집국의 이해

(1)기사란 무엇인가?

1) 기사는 소식을 전하는 글의 형식이다.
2) 기사는 글이다.
3) 기사는 기사만의 글 양식을 갖는다. 기사는 기사체라는 기사만의 문체가 있다.
(역피라미드식 문체 혹은 역삼각형식 문체라고 한다.)
4) 기사는 사실성을 생명으로 한다.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식적 장치는 6하 원칙이다–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세부적 정보가 제대로 있어야 한다.)
5) 똑같은 기사는 없다.
6) 기사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7) 기사는 사회적인 글이다.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읽기 위해 쓰는 글이기에 기자는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고 사회와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 늘 염두에 두고 취재해야 한다.
8) 기사 쓰기는 사고력 훈련이다.
기사는 발생한 사건의 기술이지만 글쓰기 작업의 결과이다.

(2) 기자는 누구인가?

기자의 인간적 품성, 사회적 기능,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자세
1) 기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2) 기자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기자 정신–정의감을 말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세, 옳은 일을 위해 글을 쓰는 태도)
3) 기자는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4) 기자는 언제나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기자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6) 기자는 부지런하고 끈질겨야 한다.

7) 기자는 특권에 따른 책임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자는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편집국의 구조와 기사 만드는 과정

1) 최고 경영진-발행인

신문사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결정-경영적 업무에 집중

2) 편집국 관련 직책

① 주필-편집상의 최고 책임자로 발행인에게서 편집 업무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편집 내용과 지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

② 편집국장-기사의 취재와 편집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 편집회의 주재

③ 편집부장-편집부의 책임자로 각 부에서 넘어오는 기사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지면별로 배치하여 신문의 틀을 만들어 내는 일을 맡는다.

④ 다른 주요 부장-취재 영역별로 담당하는 부장이 있다.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국제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사진부장

사진부장-편집국 각 부에서 취재하는 기사에 필요한 사진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는다.

미술부장-사진과 별도로 그래픽이나 캐리커처 등 미술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관장한다.

3) 편집국 외의 다른 부서-총무국, 광고국, 판매국, 제작국, 사업국 등

4)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① 데스크(에디터, 담당부장)와의 관계(데스크라는 말은 기자가 일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부장을 일컫는 말인 동시에 기사를 검토하고 첨삭도 하는 에디팅 과정을 뜻한다.)

② 기사 작성부터 인쇄로 넘겨질 때까지 6단계

1. 담당기자의 기사 작성
2. 담당 부장의 검토
3. 편집국장(부국장)의 검토
4. 편집부 검토, 제목 뽑기, 지면 배치
5. 제작국 마무리 작업
6. 공무국 인쇄

2. 기사쓰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

(1)기사의 기본형: 역피라미드 양식

1) 의견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사실 중심의 객관주의

2) 역피라미드식(역삼각형식) 기사의 기본 원리(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맨 처음에 제시하고 이어서 차례로 덜 중요한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3) 역피라미드 기사의 장점

① 독자가 기사의 핵심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다.

② 편집 과정에서 기사 뒷부분을 잘라내도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다.

(2)기사의 구성 요소

1) 양식적 요소

① 제목

② 리드

③ 본문

2) 내용의 구성 요소

① 취재원-기사를 쓰기 위해 기자가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사람, 기관

② 6하 원칙

기사가 전하는 사실의 구체성을 구성하는 내용.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들을 알면 독자는 기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한다.

누가: 기사가 다루는 개인이나 기관-행위의 주체

언제, 어디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무엇을: 행위나 사건의 내용

어떻게: 기사가 다루는 사건이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묘사

왜: 이유는 많은 경우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실 전달을 넘어 기자의 주관적 해석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분석 기사나 해설 기사 등에서는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낸다.

(3)역피라미드형 기사 쓰기

1) 역피라미드식 사고는 갖고 있는 정보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취재한 정보의 경중을 가리는 훈련, 기사에 포함할 내용과 버릴 내용을 추려내는 연습, 어떠한 시각에서 기사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등 여러 가지 사고력 훈련이 포함된다.)

2) 역피라미드식 기사의 구조는, 리드에서 제시한 사실에 대한 요약을 문장으로 연결해 가며 구체적 사실을 담은 정보로 뒷받침하는 양식을 취한다.

3) 각 문장은 한 가지 내용만을 담도록 쓰는 편이 좋다.

4) 역피라미드식 기사양식이 발전된 원인

① 독자는 기사를 읽다가 어느 때고 멈출 수 있다. 기자는 그러한 독자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사를 써야 한다. 심지어 한 줄만 읽는 독자도 기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알아야 한다.
② 편집자들은 언제나 기사의 길이를 갖고 고민한다. 지면이 부족하면 기사를 줄여야 하는데 역피라미드 방식은 이 작업을 쉽게 한다. 뒤에서 잘라내도 기사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③ 역피라미드식 기사는 결론부터 전한다.
사실을 발생한 순서대로 전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정황에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쓰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무너졌다, 몇 사람이 다쳤다,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글을 쓴다.

(4) 역피라미드 기사의 작성 과정

1) 리드를 위한 고려사항
① 리드의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해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하라.
② 기자가 쓰고자 하는 기사는 다른 기사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리드를 쓸 때 강한 인상의 동사를 적절하게 활용—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진부한 동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정확히 묘사하라.
④ 리드는 독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기자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 중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6하원칙의 내용이다.
2) 기사 본문의 구성
기사의 본문은 리드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들로 채워진다(자료제공 취재원 제시, 해당 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 정보 전달).

3. 기사거리 찾기

(1) 무엇이 기사가 되는가?

1) 시의성, 중요성, 근접성, 현저성, 특이성, 갈등양상
2) 현업에서 기사는 현장 기자나 데스크가 "기사가 된다"고 판단해 글로 써서 신문에 낸 상품을 말한다.
3)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늘 자리하나 독자가 직접 기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공간은 전혀 없다.

(2) 기사 찾기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

1) 기사 감각은 노력으로 단련된다.

① 기사를 보는 눈은 많은 읽기와 관찰을 통해 차츰 차츰 만들어진다.
② 기사 감각이 좋으려면 폭넓은 독서를 통한 지적 능력의 축적과 다양한 세상 경험에 의한 현실 감각의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뉴스 흐름을 이해하라.

①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세상 일을 전하는 뉴스의 틀은 어떻고, 해당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인가.
② 뉴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문 읽기와 방송 듣고 보기가 필수
③ 흐름과 관련된 잡지, 학술지, 논문 등도 읽고 정리하는 습관 기를 것

3) 새로운 현상을 잡아내는 안목을 길러라.

①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져도 그 사실의 새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시도한다. 그러한 구조적 변화를 느끼고 글로 정리하는 것은 기자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

4)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①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시 명동의 사무직 근로자 시위 참여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러한 현상을 '넥타이 부대 반정부 시위 가담' 이라는 시각에서 기사를 썼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해외 신문들은 '중산층 시위 가담' 으로 의미를 확대해 한국에서 중산층도 집권세력에 등을 돌렸다는 시각을 부각, 비슷해 보이지만 큰 관점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다.
② 좋은 기사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5) 매체의 특성과 데스크의 시각을 파악하라.

① 신문에서는 기사가 돼도 방송에서는 안 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 동물이나 희귀식물에 관한 기사는 방송에 적합하다. 복잡한 관념적 논의가 중심을 이루는 논문의 소개는 인쇄매체 기사 유형에 속한다. 기자는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잘 소화해야 한다.
② 매체의 특성에는 신문의 성격, 예를 들면 경제 신문인가 아니면 종합 신문인가 또는 스포츠 신문인가에 대한 인식도 포함한다.

(3) 기사거리 찾기

1) 포커스 집단과 모니터의 활용

개별 기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한 반응이나 그들이 읽고 싶어 하는 기사에 대한 의견 등을 가까운 친구나 독자에게 물어 참고할 수 있다.

2) 사람을 통한 기사 발굴

① 보도자료나 출입처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사람과의 만남,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얻어진다.
② 사람은 대통령, 장관 등 공직자부터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교통경찰, 슈퍼마켓 주인

등 다양한 계층을 모두 포함한다.
③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취재하는 동안 기자는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 도중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흘려듣지 않는 것이다.
④ 한 미국 기자는 자신의 취재원을 모두 직업별, 이름별, 지역별로 철저히 분류한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용한다.

3) 공공기관의 문서나 자료의 활용

① 정부 각 부처나 국회, 각종 연구기관의 공문서나 보고서 등 형태로 존재, 이러한 공식 문건들만 차분하게 검토해도 수많은 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② 문서들이 인터넷에 올려져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4) 신문과 잡지의 활용

① 기자는 신문에서 취재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다.
② 전문 잡지나 학술지는 과학기술 분야 기사를 쓸 때 자주 활용되는 자료다.

5) 신문 광고의 활용

① 우리나라 파스퇴르 우유의 경우, 독특한 광고 전략으로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다.
②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아파트와 전원주택 등의 급매물이 상당히 싼 가격에 나오는 추세를 광고를 통해 확인한다든가, 법원 경매 부동산의 최저 가격이 자꾸 하락한다는 등의 광고 내용은 좋은 기사거리를 제공한다.

6) 인터넷을 활용한다.

① 네티즌의 반응도 중요한 취재 대상이다.

(4) 취재계획서

1) 기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사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다.
2) 취재계획서를 만들고 그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면 귀중한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되풀이해서 생각할 수 있어 좋다.

3) 취재의 기초와 취재원

취재는 기자가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될 문건이나 녹음을 확보하고 노력한다. 기자는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도 기울인다.

4) 편집국의 취재 체제

① 신문은 사회 전 분야를 효과적으로 취재하기 위해 편집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부서로 나눠 운영한다.

5) 출입처와 대변인

① 대변인은 취재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나 기업이 기자들의 일을 돕기 위해 설치한 기관의 책임자다.

② 출입처는 기자의 취재 영역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6) 취재 관련 관행들

① 기자는 취재원을 대할 때 기사가 나간 뒤 그 사람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대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도가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 엠바고(embargo)
엠바고 요청의 경우 기자들은 그 시간 이후에 기사를 내보낸다.

③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
취재원의 말을 모두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며 보도해도 좋다는 뜻이다.

④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취재원 쪽에서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다.

⑤ 배경 설명(background)
취재원 쪽에서 신분 노출을 꺼릴 때 이러한 조건을 거는 수가 있다.
심층 취재 기사나 고발성이 강한 기사에서 이러한 취재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4. 기사쓰기와 고치기

(1) 기사쓰기의 과정

1) 기사 작성의 4단계 접근법

① 기사의 주제를 세밀하게 정하기
– 다루고자 하는 기사거리는 초점이 잘 맞춰졌는가? 혹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② 자료 수집 또는 취재 작업
– 더 필요한 자료는 없는가? 새로운 취재원을 접촉해야 하는가?

③ 기사 골격의 구성
– 기사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는 만족스러운가?, 리드는 제대로 정했는가?

2) 기사 고치기

① 전체적으로 기사의 흐름은 좋은가?

② 결정적인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③ 글의 흐름과 어휘의 선택은 자연스러운가?

④ 문법, 어법을 잘 지켰는가?

(2) FORK 방법

F=Focus초점-기사의 중심내용, 알맹이
O=Order 기사 내용을 배열하는 순서-취재수첩을 사용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취재 수첩을 펼쳐 놓고 꼭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보이게 표시한 다음 차례를 정해 나열해 보면 기사의 흐름도 구체적인 구도를 잡게 된다.
R=Repetition of key words 주요 어휘의 반복-독자로 하여금 기사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와 기사의 집중도를 높이는 요령
K=Kiss off 여러 사람을 취재원으로 쓸 경우 한 취재원은 가능하면 한 단락에서만 사용하고 단락이 바뀌면 다른 취재원을 써야 한다-기사가 길고 복잡할 경우에 효과가 있다.

(3) 기사 쓸 때의 유의점

1) 쓰고 있는 기사의 초점을 기억하라.
기사를 쓰는 동안 중심 개념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뜻이다. 한 기사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담아야 한다. 기사에 동원되는 자료는 모두 그 기사의 초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2) 리드를 여러 개 준비하라.
처음부터 완벽한 리드를 쓰려고 하지 마라. 리드를 서너 개 써보라. 그리고 나머지 기사를 완성하라. 그 다음 전체를 다시 점검하며 가장 좋은 리드를 골라 사용하면 기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3) 기사를 쓰면서 독자의 질문을 의식하라.
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독자가 바라는 표현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려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상의 상호작용은 글쓰기를 더욱 동적인 긴장감으로 채운다.

4) 기사의 정확성을 확인하라.
특히 사람 이름이나 장소, 시간 등 객관적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인용문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 인용인 경우 이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때로 입장이 정반대로 제시되는 수도 있고, 부분인용인 경우 취재원의 말을 본의 아니게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고치기는 나중에 하라.
기사를 쓰며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표시를 했다가 뒤에 전체 내용을 다시 읽으며 손질하는 편이 좋다. 각 부분의 문제에 너무 매여 있으면 정작 중요한 큰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 큰 소리로 읽어 보라.
기사가 어색해 보이면 소리 내어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눈으로 잡지 못하는 잘못을 귀로 들으면 더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시간 여유를 두고 다시 한 번 점검하라.
바로 신문에 실리는 기사가 아니면 다음날 다시 한 번 기사를 읽어 보는 절차를 거치면 당장 찾을 수 없는 부족한 점들이 쉽게 드러난다. 기사쓰기를 마치고 2~3시간이 지난 뒤에 여유를 찾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

(4) 좋은 문장은 어떻게 쓰나

1) 좋은 문장은 독자가 좋아하는 문장이다. 좋은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읽는 사람이 쉽게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문장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

2) 마크 트웨인

어휘선택의 중요성-"올바른 어휘와 거의 올바른 어휘의 차이는 마치 번개와 반딧불의 차이와 같다." · 이 말은 상황에 꼭 맞는 말을 쓸 때와 그에 가까운 표현을 쓸 때 효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윌리엄 스트렁크 2세

"힘 있는 글은 간결하다. 한 문장에 불필요한 어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한 단락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문장을 하나라도 쓰면 안 된다. 이는 마치 연필로 그리는 그림이 쓸모없는 선을 하나라도 그으면 안 되는 것과 같고 기계에 쓸모없는 부품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도 같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문장을 짧게 써야 한다거나 세부 사항을 피해서 골격만을 묘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든 어휘가 의미를 갖도록 주문할 뿐이다."

문장에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가 쓸모없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모든 어휘가 각 문장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스트렁크 2세의 권고는 특히 상투적 표현에 무뎌진 사람들을 겨냥한다고 볼 수 있다.

(5) 좋은 문장을 쓰는 요령

1) 능동형 동사를 써라.

독자는 적극적인 글을 좋아한다. 동작이 있는 글이 좋다. 그리고 수동형보다는 능동형 구문이 더 간결하다.

예문) 사내는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준 다음 문을 열었다.

'채워져 있던' 수갑보다는 '채운' 수갑이 훨씬 간결하다.

2) 문장을 짧게 써라.

문장이 길면 당연히 이해하기도 힘들다. 문장이 길면 한 문장 안에 주어가 여러 개 등장하고 동사와 형용사도 많을 수밖에 없다. 국어학자 박갑수 씨는 신문 기사는 한 문장에 50자 정도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예문1) 미국은 최근 미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북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설연락사무소 대신 순회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연말까지 설치를 목표로 북한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예문2) 신한국당이 6일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민자당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날 전당대회는 단순한 총선 출정식만은 아니었다. 새 정치의 출범을 약속한 자리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새 정치의 족쇄를 자기 발목에 채웠다. 그리고는 유권자의 심판을 요구했다. 어찌 보면 크나큰 모험을 강행한 것이다.

-예문1)은 모두 83자로 구성됐다. 예문2)는 긴 문장이 25자, 짧은 문장은 13자다. 앞글은 비교적 복잡한 상황을 전하는 사실 보도이고, 뒷글은 해설 기사라는 양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읽고 맛을 느끼기는 두 번째 글이 낫다.

3) 복문과 중문은 피하고 단문을 써라.

주어와 동사는 서로 가까이 있어야 좋다. 수식어도 수식해 주는 대상과 가까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수식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 복문이나 중문 등은 전하는 내용이 한 문장 안에 뭉뚱그려 있어 읽어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문1)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확대를 준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글은 앞에서 유럽 관련 기구가 두 개 연달아 나온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혼란스럽다. 주어인 '유럽의회'와 동사인 '밝혔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절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고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의회는 10일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문2) 한국공무원정도회 서울남부지부 관악분회 익명 회원 명의의 이 편지 겉봉투 앞면에는 촌지를 사절하오니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는 내용이, 뒷면에는 추석 전날 민원인에게 피치 못해 받은 촌지로 고민하는 공직자들이 많으니 귀사에서 촌지 불우이웃돕기 기탁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위 문장은 기본적으로 한 문장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길다. 여기 쓰인 글자는 모두 126자나 된다. 위 문장은 별 무리 없이 두 문장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돼 있다. 아래 문장처럼 고쳐 쓰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한국공무원정도회 서울남부지부 관악분회 익명 회원 이름의 이 편지 봉투 앞면에는 촌지를 사절하오니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뒷면에는 추석 전날 민원인에게 피치 못해 받은 촌지로 고민하는 공직자가 있으니 귀사에서 촌지 불우이웃돕기 기탁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4) 글 호흡에 변화를 줘라.

긴 문장을 써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럴 때 긴 문장 다음 문장은 최대한 짧게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 독자는 지루해 하지 않는다. 만약 긴 문장이 계속 같은 수준의 복합적 구조로 이어진다면 읽는 사람은 쉽게 싫증을 내게 된다. 다음 예문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장·단을 배합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예문)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 이외의 책을 한 권도 읽은 기억이 없다. 집에는 책이 없었다. 우리 집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를 통틀어 보았자 어느 집에도 별다른 책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좁은 세계였다. 책이 그다지 흔한 시절도

아니었다. 단 한 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디서 용케 빌려 왔던 것일까, 어머니가 옛이야기 삼아 읽어 주던 책이 생각난다. 지금도 그 책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 무쇠탈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일보, 1997년 11월 22일, 김성우 칼럼

5) 전문 용어의 사용을 피하라.
조지 오웰– "절대로 외래어 표현이나 학술 용어, 또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쓰는 전문 용어를 쓰지 말라. 특히 평범한 일상용어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최대한 보통 사람이 쓰는 일상 언어를 사용해 글을 쓰라는 충고다.

6) 시청각 감각을 자극하도록 써라.

7) 세부묘사를 잘하라.
세부묘사가 없는 기사는 건조하다. 추상적인 개념들로만 채워진 문장은 독자의 주의를 끌기 어렵다. 기사의 맛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떠한 정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 사실에 대한 관찰과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6) 글 고치기의 중요성

1) 신문기사는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더 좋은 문장으로 독자를 만난다. 신문은 글 고치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글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출한 기사에 데스크가 손대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2) 처음부터 완벽한 글은 없다. 내용과 구조, 어법, 문장의 세련미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기자로서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데도 글 고치기 과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능한 한 여러 선배에게 자신이 쓴 기사를 보여 주고 지도를 받아 보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다.
3) 지나친 자기중심주의는 좋은 스승을 만나 글쓰기에 커다란 진보를 이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문1) 거리 가판대를 통해 배부되는 무분별한 생활정보지들의 난립으로 길거리의 쓰레기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위 문장은 무엇보다 표현과 개념이 중복되어 깔끔한 맛이 없다. 우선 '거리'와 '가판대'의 중복이다. '가판대'는 거리에 설치된 판매대를 뜻하는데 그 앞에 '거리'를 덧붙였다. 다음에 되풀이되는 말은 '무분별한'과 '난립'이다. '난립'이 무분별한 존재를 뜻하므로 역시 '무분별'은 없어도 된다. 마지막 반복은 '길거리'라는 표현 내부에 있다. '거리'라고만 해도 될 것을 '길' 자를 붙여 표현이 혼란스러워졌다.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가 기사로 쓰는 글에도 그대로 옮겨온 사례다. 기사를 쓰고 난 뒤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문2) 강남지역 응급환자 신고 전화가 119로 통일된다. 그동안 응급환자의 구급 신고는 119 구급대와 129 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받아 왔다. 129 응급환자정보센터는 긴급구조 인력을 갖추지 않아, 119 구급대에 다시 연락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가 접수한 뒤 119 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한 신고는 30만 건이 넘었다. 강남소방서는 구급체계 일원화에 따라 신속한 출동과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 기사는 리드 다음에 나와야 할 취재원을 밝히는 문장이 기사 맨 뒤에 잘못 배치돼 있다. 그래서 기사를 다 읽을 때까지도 제도 개선의 주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을 두 번째 문장으로 올려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는 날짜를 명기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강남소방서는 20일 구급체계를 일원화해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도로 고치면 기사의 틀이 바로 잡힌다.

(7) 기사쓰기의 기본 유형

1) 보도자료를 이용한 기사

① 사건, 사고기사

사건, 사고기사는 100년 전부터 중요한 취재 영역의 자리를 지켜왔다. 지금도 신문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사회면을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지면의 하나로 꼽는다. 고관대작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서민 대중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날그날 스냅 사진처럼 요약해 보여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의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에서 20년 넘게 경찰 기자로만 일해 온 에드나 뷰캐넌 기자는 사건 취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1986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다음은 그녀가 쓴 한 기사의 리드 부분이다.

유람선 딕시벨이 목요일 인디언 크릭 계곡의 북쪽으로 미끄러져 나갈 때 그곳에는 음악이 있었고 햇볕이 내리쬐였다. 강물은 반짝였고 바람은 신들거렸다. 그러다가 승객들은 갑자기 옆에 있는 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발견했다.

소설처럼 쓴 기사다. 짧은 문장 속에 탁월하게 사건 현장의 분위기를 잡아낸다. 그러면서 글 읽는 맛도 느끼게 한다. 〈마이애미 헤럴드〉의 사회부장은, 뷰캐넌 기자는 경찰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쓰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뷰캐넌은 자신은 사회부 사건 담당 일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사건 담당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취재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 자신이 5천 여 건의 사망 사건을 취재하면서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기사 쓰는 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건이나 사고의 현장은 어떠한 형태가 됐건 사회 문제가 불거져 나온 곳이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구체적인 실명의 개인들이지만 그들과 그들이 관련된 사건을 널리 알림으로써 기자는 독자의 호기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뒤틀린 곳을 드러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인물 기사

-인물기사 취재와 기사쓰기

-인터뷰란 무엇인가?

기자는 취재원을 만나 기사거리를 얻는다. 자신의 정보나 생각을 확인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인터뷰는 이처럼 기자와 취재원이 접촉하는 여러 가지 대화 양식이다. 기자가 원해서 인터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취재원이 요청해서 기자가 찾아가기도 한다.

-인터뷰의 종류

양식에 따른 분류

㉠ 대면 인터뷰

기자와 취재원이 직접 만나서 하는 인터뷰다. 만나는 장소와 시간 등의 환경적 요소가 인터뷰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취재원의 분위기, 말하는 자세, 표정, 몸짓 등도 의미를 전하는 도구이므로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양식의 인터뷰에 비해 취재 내용이 풍부하고 기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 전화 인터뷰

직접 만날 수 없을 때 전화를 이용해 취재원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대면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직접 취재원의 의사를 자신의 목소리로 확인하는 장점이 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다. 그러나 취재원의 표정이나 주변의 느낌, 몸짓, 안색 등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모두 취재원의 목소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 서면 인터뷰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겨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리적으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면회가 안 되는 장기수 또는 국가 원수 등 일정이 바쁜 사람의 경우에 쓰는 기법이다. 대면 인터뷰의 현장감이나 전화 인터뷰의 현실감은 없다. 따라서 취재원과 감정적 교감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서면 인터뷰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주요 정책 사항을 묻거나 과거 역사적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쓰인다. 서면 인터뷰의 단점은 많은 경우 답변을 취재원 본인보다는 대변인이나 홍보 담당자가 쓴다는 점이다.

내용에 따른 분류

㉠ 뉴스 인터뷰

간단히 설명하면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뉴스거리를 뽑아내는 작업이다. 재벌 총수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나 장관이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안 등이 이 범주에 든다. 때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전문가가 동원되거나 하는 것도 뉴스 인터뷰에 속한다고 하겠다.

㉡ 인물 탐구형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의 인물 됨됨이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재난 사고의 영웅이나 운동선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의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인터뷰 기사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기사 유형이다.

㉢ 집단 인터뷰

한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묻는 인터뷰 방식이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속성의 집단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의견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품성

㉠ 호기심–사람에 대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또는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

㉡ 관찰력과 기억력, 기록–순간적인 표정의 움직임이나 마음의 흐름을 잡아서 기사에 녹여 쓸 수 있는 관찰력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미세한 감정의 흐름을 잡아내는 기자가 취재원을 긴장하게 하면서도 취재원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 용기–취재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취재원이 원치 않는 질문도 할 수 있는 용기. 기자는 자신의 판단이 옳고 사회가 요구하는 질문이라면 두려움 없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고려사항

㉠ 사전 준비

준비 없는 인터뷰는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게 마련이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마이크 월레스는 인터뷰가 결정되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뒤 적어도 질문을 60개 미리 준비한다고 한다. 취재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예를 들면 고향, 학력, 경력, 가족 관계, 전문분야,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관해 인터뷰 실시 전 최대한 자세하게 공부한다.

㉡ 편안한 대화 분위기

한겨레신문의 지영선 선생은 가능하면 취재원의 공간에서 상대를 만나라고 충고한다. 취재원이 편안해 할 수 있고, 또 취재원의 분위기도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가 결정되고 취재원을 만나면 처음 몇 분간의 대화가 전체 인터뷰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형성된 분위기가 서로에 대한 자세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 주의 기울여 듣기

일단 인터뷰를 시작하면 취재원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반응도 보여 줘야 한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기계만 믿으며 준비한 질문을 차례로 던지면 정작 예기치 않게 논의되는 더 중요한 기사거리를 놓칠 수도 있다.

취재원의 말에 관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게 그랬었군요" 하는 식의 말로 상대와 호흡을 맞출 수도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터뷰가 매우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취재원에 대한 관심 표시 가운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추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다.

귀기울여 듣지 않으면 추가 질문의 기회는 없다. 그리고 취재원은 기자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앉아 있는지를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파악한다는 점도 기억하라.

㉣ 기록의 중요성

기억력을 활용하여 기사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로 메모 혹은 녹음기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메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 내용 전체를 옮겨 적는 일은 피해야 한다. 중요한 쟁점과 개념, 표현 등을 중심으로 6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확히 메모(기사의 뼈대)한다.
기사에서 사용할 에피소드, 예화, 거기에 필요한 사람 이름, 직책,33 거주지 등에 관한 자료,인터뷰 대상자의 특징과 인터뷰 장소의 분위기 등도 세밀하게 기록한다.

-기사의 정확성을 위한 유의사항
㉠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취재원에게 몇몇 상황이나 사안을 되짚어주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피차의 이해가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는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나 직책, 정확한 자료 등. 취재원의 전화나 팩스,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 인터뷰가 끝난 후 취재 수첩을 덮은 후 서둘러 자리를 뜨지 말라. 취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취재원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네게 된다. 이 때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인물 기사의 두 가지 유형
㉠ 뉴스성 인물 기사
뉴스성 인물기사는 짧게는 3~4문장으로, 최대한 내용을 압축해 글을 쓴다.

예문1) 김한길 정책기획수석
신문기자, 소설가, 방송토크쇼 진행자 등 다채로운 경력의 초선의원. 15대 총선 직전 국민회의에 영입돼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97년 대선 때 TV토론팀의 책임자로 활약,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입이 걸쭉하다는 평. 탤런트 최명길 씨가 부인(서울, 46세, 건국대 정외과, 중앙일보 미주지사장,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15대 의원,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예문2) 국방부 새 대변인 차영구 육군준장
"전쟁 대비 계획 등 극비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 국민과 더욱 가까운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일 국방부 대변인에 임명된 차영구(52) 육군준장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온 국방 행정을 가능한 한 모두 국민에게 알리고 국방공보 분야의 새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70년 육사 20기로 임관해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차 대변인은 현역 장교로는 처음으로 프랑스로 유학가 파리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4년 동안 안보정책과 군비 통제 분야의 책임 연구위원을 지내고 94년부터 국방부 정책기획국 차장으로 일해 군내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차 대변인은 방송사의 요청으로 영국 공보장교 앨퍼의 『군과 미디어』를 번역하고 객원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오직 진

실만이 통한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자세로 언론을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9년 1월 6일, 송상근 기자

예문1)과 차이점은 소개되는 사람의 인용문이 글 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기사를 쓸 때는 대상 인물의 기본적인 약력 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에 덧붙여 당사자와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본인의 인용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
기사의 초점, 단순 약력의 나열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리드가 필요한데 예문2)의 경우는 해당 인물의 인용문을 리드로 썼다.

㉡ 잡지적 인물 기사
글의 구조나 문체도 간략한 기사 유형과는 전혀 다르며 기사의 시작, 중간, 끝 부분의 배열은 무미건조한 사실 나열식이 아니라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되고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긴장요소의 도입 등 수사적 장치가 동원된다.
잡지적 인물 기사는 뉴스성 인물 기사보다 한결 길게 쓰는 인물 기사를 말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사적 쟁점들과는 대부분 관계가 없는 인물을 다룬다. 대상이 되는 인물의 특별한 개성이나 특징, 예를 들면 뛰어난 예술가이거나 오랜 시간 뒤에서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도와 온 사람이라거나 하는 인물의 개성적 측면을 자세하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마이애미 대학의 브루스 개리슨 교수는 인물기사는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고향, 부모, 형제, 성장과정, 교육(시간의 순서로 쓴다.)
ⓑ 현재의 생활 또는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어떠한 일터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무실은 얼마만 하고 일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등의 정보를 정리)
ⓒ 해당 인물과 얽힌 일화, 에피소드(이 사람이 어떠한 경우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구체적 예화를 통해 묘사하면 독자는 그 인물의 품성이나 일하는 모습 또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쉽게 그려낼 수 있다.)
ⓓ 개인 관련 사항과 가족사항(키, 주량, 습관, 여가 생활 등의 정보, 가족사항은 결혼 여부, 자녀의 수, 그들과의 관계 등을 말한다.)

–전개방식
㉠ 리드
㉡ 대상 인물의 성공 내용, 관심을 끄는 이벤트
㉢ 인적사항 기술
㉣ 마무리

예문1) 신예 만화가 천계영 씨
지금의 30대가 자난날 '캔디'에 열광하고 '테리우스' 때문에 밤을 지샜다면 지금의 10대는 만화 '언플러그드 보이'에 열광

하고 남자 주인공 '현겸'이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

'언플러그드 보이'의 작가 천계영(29) 씨. 96년 데뷔해 이제까지 불과 3편의 작품집, 5권의 만화책을 냈을 뿐인 그는 그러나 최근 고교, 대학생 대상 조사에서 거장 이현세와 함께 가장 인기있는 작가로 꼽혔다. 또 현겸이가 오리온 '와우' 풍선껌 CF에 등장했는가 하면, 그의 작품 속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팬시류 제품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등 그의 캐릭터들은 무서운 속도로 10대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대부분 만화가들이 오랜 습작 시간과 문하생 시절을 거친 것과 달리 그는 1년 여의 '독학'으로 만화가가 됐다. 이대 법학과 출신(89학번). 창작 생활이 좋아 졸업 후 CF프로덕션에 입사했지만 '광고주'의 성향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광고의 속성이 천 씨를 숨막히게 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어릴 때부터 솜씨가 있었던 '만화.' 95년 5월 사표를 내고 습작을 시작, 10개월 만에 〈윙크〉지 신인 공모에 작품 '탤런트'로 입상했다.

"다들 저보고 빠르다고 하지만 저는 그 1년이 다른 이들의 5년과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 그리기 시작하면 잠자기 전까지 잠시도 쉬지 않았으니까요."

작은 체구에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앳된 외모의 천 씨는 타고난 외곬. 현재 〈윙크〉에 연재중인 '오디션'을 위해 요즘도 그는 전화 코드를 뽑아 놓고 하루 15시간씩 작업한다.

'언플러그드 보이'는 남녀 고교생들이 주인공인 순정만화. '오디션' 역시 10대 뮤지션들이 주인공. '탤런트' 등 몇몇 단편도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무대다. 놀라운 것은 천 씨가 이들 10대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재현해 낸다는 것.

10대들의 패션, 노래, 꿈, 학교생활이 10대의 언어로 세심하게 그려져 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아마 정신 연령이 아직 10대인 모양"이라며 웃는다.

배경 담당 서현주, 스크린톤 담당 윤진희, 문하생 김귀옥과 안산의 한 주공아파트에 기거하며 그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3억원. 그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부피가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실감나게 한다. 지난 1월에는 H.O.T의 뮤직비디오 '우리들의 맹세'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작업 반경을 넓히고 있다.

"만화가 취미이자 직업이며 꿈이자 삶"이라는 그는 "만화가의 길을 가게 해 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외곬과 수줍음과 순수함, 좀처럼 세상과 쉽게 섞일 것 같지 않은 이런 요소가 그의 열정과 합해지는 데서 그의 '파워'는 나오는 듯했다.

중앙일보, 1999년 2월 25일, 이경선 기자

이 기사에서 리드는 첫 번째 문장이자 단락이다. 기자는 리드에서 캔디와 테리우스, 현겸이를 병렬시킴으로써 소개하고자 하는 만화가에 대한 관심을 한껏 높인다. 과거 가장 인기 있던 만화 주인공들과 이 기사의 대상 인물이 그리는 만화 주인공을 같은 수준에서 보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이처럼 리드는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기능을 한다. 독자로 하여금 기사에 호기심을 갖게 유도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도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천계영 씨가 최근에 무엇을 이룩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출간한 만화 수와 독자 인기 조사 결과, 그리고 광고에 등장한 사실 등을 동원해 보여 준다. 그 다음에 기자는 과거로 돌아가 이 만화가가 어떻게 만화를 공부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는 시점을 현재로 옮겨 기사를 쓸 당시 해당 인물은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고 미래 계획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마지막 부분은 천계영 씨의 직업관, 인간적인 모습 등을 묘사하며 기사를 끝낸다.

-인물 기사를 위한 취재 사항

㉠ 인적사항 / 생년월일, 고향. 교육내용, 직업 경력, 가족사항(부모, 형제), 어린 시절, 친구 관계

㉡ 시사적 정보 / 진급, 임명, 당선 등, 수상, 명예로운 일, 성공한 프로젝트

㉢ 생활 환경/근무 환경, 집, 사무실 묘사, 과거 환경, 신체적/개인적 특징, 키, 체형, 생활 습관, 옷 입는 스타일, 머리 모양 등

㉣ 일화/에피소드, 당황스런 순간들, 성공적인 순간, 기억나는 과거 일화 등

㉤ 가족/배우자, 결혼 내용, 과거 결혼관계, 아이들(나이, 이름 등)

애완동물

㉥ 개인 사항/일반적 생활 철학, 자세, 미래 계획, 꿈, 목표, 취미, 관심 사항, 좋아하는 음식, 음악 등, 여가시간 활동, 종교 사항, 군 경험, 사회봉사 경험, 회원 가입 기구들 등

기사는 대상 인물의 일생을 모두 다루는 전기가 아니다. 취재기자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연스레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잡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는 매우 밋밋한, 그리고 긴장감 없는 사실의 나열에 그치기 쉽다.

③ 미담 기사

2) 보도자료를 이용한 기사쓰기

① 보도자료는 취재원이 기자와 언론사의 편의를 위해 정리해 제공하는 기초 자료다. 관공서나 기업, 경제단체, 노동단체, 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사회 집단들은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 사회운동 등을 시작하면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에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는 알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 또는 행사의 중요 내용을 기자가 이용하기 좋도록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한 문건이다. 때문에 해당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는 대체로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한다.

② 보도자료를 만드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이다.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에는 공보관실이 있다.

③ 보도자료의 형태와 전달 방법

보도자료는 대부분 문서로 돼 있다.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간략하게 요약한 서류 형식을 취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서를 사람이 직접 신문사 담당 데스크에 배달했으나 지금은 팩스, 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담당기자에게 전달한다.

3) 보도자료의 기본 성격

보도자료를 잘 다루려면 기본 속성을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① 보도자료는 홍보물이다.

보도자료는 취재원 쪽에서 기자를 설득해 자신들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문건이다. 중요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문건의 논리를 따라가면 취재원의 입장을 위해 그대로 기사에 반영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홍보적 시각이 가능한 배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료 속에 구조적으로 배치된 홍보의 의도를 최대한 덜어내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를 선택해 기사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② 보도자료는 편파적이다.

갈등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갈등의 한 당사자가 보도자료를 내면,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보도자료는 이처럼 일방성, 또는 당파성을 갖는다.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돋보이게 하는 주장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과 주장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날카롭게 대립하는 갈등 상황을 취재하는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도자료를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조심해서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③ 보도자료에는 과장이 포함돼 있다.

과거 신문사에서 접하는 보도자료들 가운데는 '동양 최대'니 '세계 최초'니 하는 제목을 단 내용이 많았다. 그러면 신문은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옮기곤 했다. 보도자료를 만드는 기관과 전문가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요즘도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제공된다. "세계 최초의 수술 성공", "가장 빠른 메모리 반도체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는 좀더 조심스런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권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기사가 종종 독자의 시선을 끌지만, 이러한 자료는 연구자나 개발 회사의 홍보 욕구가 지나쳐 과대 포장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때로는 심각한 오보의 가능성까지 내포하는지를 알 수 있다.

4) 보도자료의 유형

언론사에 전달되는 보도자료는 대개 다음 여섯 가지로 나뉜다. 여기 소개하는 유형이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제시하는 유형의 복합 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

① 행사 안내 보도자료
② 공지사항을 담은 보도자료
③ 정책을 알리는 보도자료
④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보도자료
⑤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하는 보도자료
⑥ 사건 개요를 정리한 보도자료

① 행사 안내 보도자료

백화점의 할인 판매 안내에서부터 구청이나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 체육행사,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

상식 등 다양한 행사의 주최 기관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행사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다.

예문)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1997년 2월 13일
제공부서: 한강관리사업소 녹지과
연락전화: 791-0781~3

제목: 우리밀밭 밟기 행사
-한강관리사업소(소장 전찬명)에서는 도시 경관 향상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1996년 10월에 파종한 국회 뒤편 저수부지 외 3개소, 45,400평의 우리밀 단지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서릿발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밀밭 밟기 행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본 행사를 통하여 우리밀밭에 대한 옛 정취를 되살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라져가는 우리의 농촌 생활상을 재현함으로써 농작물 재배 방법 등을 일깨워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 누구든지 참여를 원하는 자는 전화로 접수받아 시행키로 하였다.
-특히, 1997. 2. 26(수)15:00~17:00 시범 행사 지역은 여의도지구 국회 뒤편 저수부지 외 1개소 6,360평에서 시행하는 우리밀밭 밟기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밀제품에 대한 전시회 등도 가질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이나 접수는 한강관리사업소 시설부 녹지과 전화 791-0781~3, 여의도지구(782-2989), 광나루지구(485-3091)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단순한 행사 안내의 목적에 맞게 주관 부서와 행사의 취지, 행사 내용과 참여 요령 등이 가지런하게 정리돼 있다.

② 공지사항을 담은 보도자료
공지사항에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다. 특히 수돗물이 안 나오거나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지역별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밖에 공공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에 관한 사항,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안내사항, 교통량이 많은 지역 터널이나 다리의 보수 공사 관련 내용 등도 공지사항 성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주 언론사에 전달된다. 구청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든가 또는 일식 관계로 국제전화의 통화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등의 내용도 이러한 유형의 보도자료에 속한다. 다음은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다.

예문1)외무부 보도자료
제공일자: 1998년 1월 26일
제 공 처: 주한미국공보원

연락전화: 397-4398, 4368

제목 : 미 영사관 수수료 인상

미 국무부는 해외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여 발표했다. 수수료 조정은 법정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영사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미국의 모든 해외 공관에서 2월 1일부터 발효하며 주한미국대사관과 부산의 영사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조정된 수수료 체계에 따라 이민 비자의 신청/발행 수수료는 325달러로 인상될 것이며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내는 기계판독가능비자(MRV) 처리 수수료는 전국 한미은행 지점에서 납부 가능하다. 20달러나 동일 가치의 원화로 표시된 MRV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구입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 중 2월 1일 이전까지 비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한미은행에서 추가로 25달러를 내고 영수증을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수료도 일부 조정되며, 공증 서비스 수수료는 10달러에서 55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미 대사관은 비자 정보 서비스(전화 700-2510)를 통해 미국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여권과 미국 시민을 위한 대사관 서비스에 관한 문의사항은 397-4603으로 전화하면 된다.

예문1)은 영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어떻게 인상되는가를 항목별로 밝힌 자료다. 이 자료는 또 왜 이러한 인상이 필요한지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2)는 위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만든 기사의 예다.

예문2) 미 비자 수수료 새달부터 125% 인상

주한 미 대사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미국 비이민 비자 수수료를 현행 20달러에서 45달러로 125% 인상키로 했다고 주한미공보원(USIS)이 26일 발표했다. 또 이민 비자의 신청, 발행 수수료도 현행 200달러에서 325달러로 62.5% 인상된다.

USIS는 "미 국무부는 최근 해외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 영사 서비스 비용을 충당키로 하고 이를 조정했다"면서 "새 수수료 체계는 미국의 모든 해외공관에서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한 미국대사관과 부산의 영사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998년 1월 27일

예문3) 캐리비안베이 4개월 휴장

삼성에버랜드는 2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에버랜드 내 워터파크인 캐리비안베이를 휴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버랜드는 비용 절감과 개·보수 작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2개월 이상 휴장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공서의 알림 내용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업 시설에 관련된 정보도 종종 기사로 처리되곤 한다.

③ 정책을 알리는 보도자료

공지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는 주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전화국 등 대인 서비스 기관이 배포하는 데 비해 정책 관련

자료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중앙 부처의 공보관실에서 만든다. 자기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 관제의 진전 상황을 알리거나 새로운 정책의 추진 계획 등을 담은 경우가 많다.

④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모두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정 개인의 명성이나 업적을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가 있다. 보통 '동정' 기사라고 불리는 유형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말한다. '000회장이 어떠한 목적으로 미주 지역을 방문한다', '000 의원이 어떠어떠한 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는 등의 내용이 이러한 예다. 학자들의 수상, 연구 업적의 국제적 인정 등의 내용도 이미지를 높이는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기사화 여부가 결정되며 주로 신문의 동정란에 실린다.

⑤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하는 보도자료

자주 전달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료에 비해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추가 취재가 필요한 유형이다. 단순한 자기 홍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당사자가 쌍방이 아니라 제3자나 4자인 경우도 있어 이러한 보도자료의 기사화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명예훼손이나 사실의 단순화, 왜곡 등도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 기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사건 개요를 정리한 보도자료

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수사 결과 홍보자료를 말한다. 특정 범죄 행위를 어떻게 포착했고, 또 용의자를 어떻게 체포했으며, 범죄 행위의 증거로 확보한 것들을 설명한다.

-보도자료는 전달된 그대로 기사화해서는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없다. 자료를 받으면 자료의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보충 위재를 해야 한다. 적어도 제시된 사실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자료를 낸 상대방의 설명이나 입장을 듣고 기사의 방향을 잡는 자세가 중요하다.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운 기사거리를 찾는 길잡이로 훌륭한 가치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자는 보도자료를 접하면 그 자료를 기초로 새롭게 추적할 가치가 있는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 이재경, 「기사작성의 기초」

첫모임 8월 3일 첫 번째 모임

2007년 8월 3일 오후 금빛초등학교 4-6반 교실엔 5, 6학년의 21명 아이들과 학부모 한 명이 모였다.

가제 '꿈꾸는 아이들'의 기획자 김성수가 이 모임의 기획의도 발표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다. 우장순의 영상뉴스에 대한 설명과 박연우와 박영실의 신문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아이들은 영상뉴스와 신문으로 나뉘었다.

신문은 12명이 지원했으며, 영상은 9명이 지원하였다. 분야가 달라서 4-6반엔 신문기자가 될 아이들만 남고 영상뉴스 기자단은 반을 옮겼다.

신문기자 지망생 12명의 아이들 중 5학년은 김귀현, 김은하, 문소희, 오시영, 안원모, 안혜빈, 전은지, 전지혜 8명이며, 6학년은 박예은, 배상지, 신은지, 서선화 4명이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후 지원 동기를 물어보니 대부분 선생님이 추천해서 왔다고 한다. 자기 의지로 이 모임에 참석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으나, 아이들은 설명을 들어보니 신문 만드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한다.

아이들과 만들어 갈 신문 이름 달기 작업을 했다. 제호에 대한 아이들의 제안은 사방팔방으로 튀었다.

"새싹이 어때요? 우리가 어린이이니 새싹이 좋죠?"

"아니, 무지개는 어때? 희망적이잖아?"

"희망과 느낌이 비슷한 건 꿈나무가 더 좋지 않아?"

"올림픽에 나가냐, 무슨 꿈나무? 하하하."

아이들의 말은 끝날 줄 모르는데 이거다 하는 제호는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라고 과제로 준 후 첫 모임을 마쳤다.

김귀현
김은하
안혜빈
박예은
오시영
서선화
전은지
전지혜
문소희
안원주
배상지
신은지

한울신문카페
한울신문카페
한울신문카페
한울신문카페

카페를 만들었어요 8월 11일 두 번째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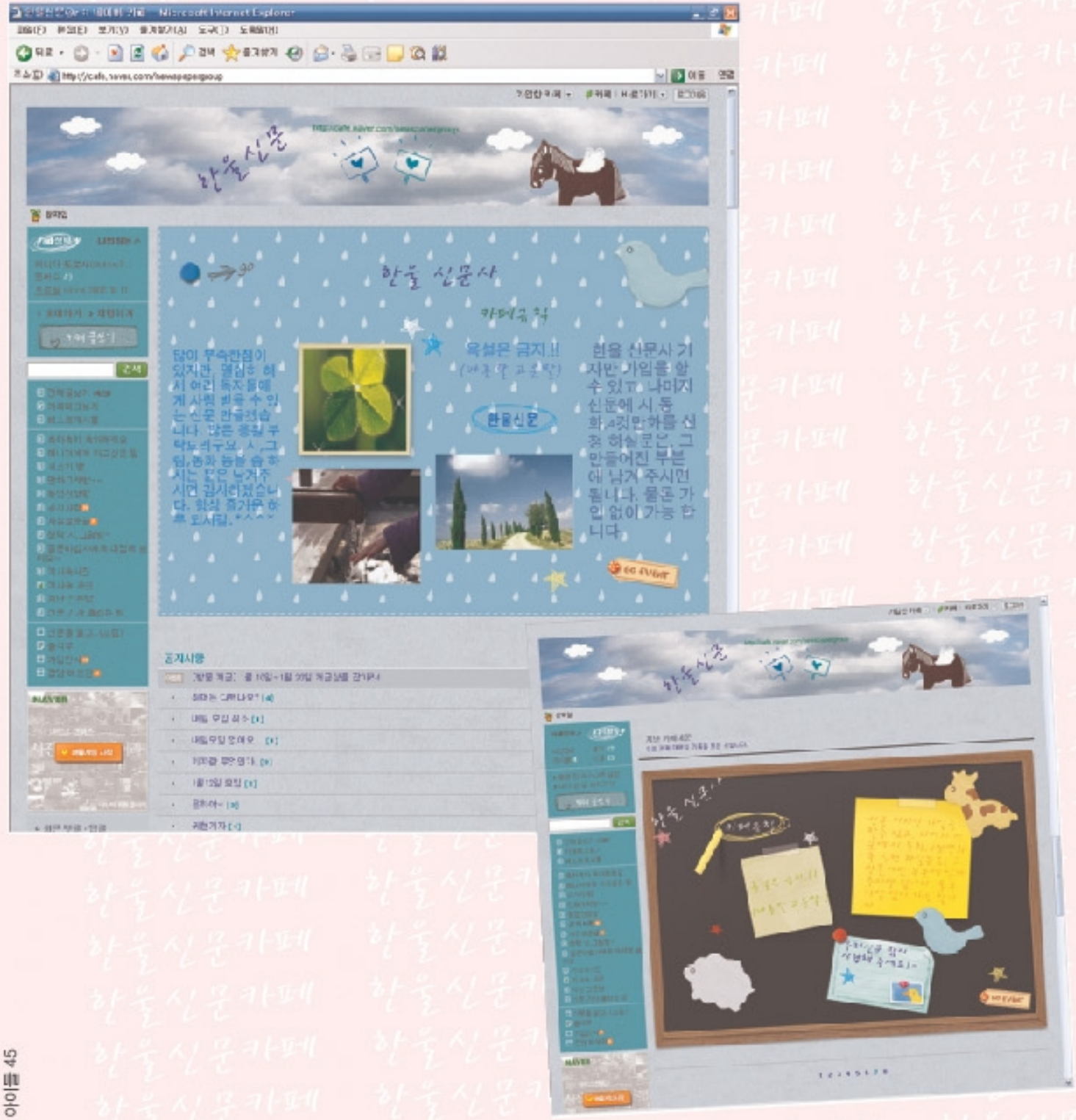
지루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낯빛에 지루함이 역력하다.

지난 첫모임에 강의를 하지 못한 관계로 마음 같아서는 2회차 강의까지 스피드하게 하고 싶었으나 1회차 강의가 기자정신에 대한 내용이어서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기사가 만들어지는 요소 중 기자정신이 50퍼센트를 넘어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글쓰기는 그 다음이다.

강의가 끝난 후 지난 모임에 내준 제호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를 했다.
지난번과 비슷할 뿐 진전이 없다. 그때 배상지가 말을 했다.
"선생님, 이건 제호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인데 자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건 전혀 관계가 없지. 그런데 '하울' 느낌이 좋네."
"너희들, 혹시 '한울' 이란 단어를 아니?"
아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내젓는다.
"'한울' 은 순우리말인데 큰 나무, 큰 우주, 큰 나 자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우리가 만들 신문이 태평4동 동네신문이니 왠지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했다. 만장일치로 제호를 '한울신문' 으로 정했다. 아마 과제가 주는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제호를 만들었으니 소통할 수 있는 카페가 필요했다.

우리들의 정식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이다. 아이들과 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기사를 쓰면 서로 읽어보고 조언을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도 없으니 카페에서 소통할 수밖에 없다.
카페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있냐고 물으니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이 손을 든다. 한울신문 카페를 만들어야 하는데 책임지고 만들고 관리할 사람 있냐고 물으니 세 명이 손을 든다.
전은지, 오시영, 안혜빈 이렇게 세 명이 카페를 만들고 관리하기로 했다.
8월 11일 저녁 네이버엔 '한울신문사' 카페가 만들어졌다.
이 날은 아이들의 명함을 만들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한 날이기도 하다.


한울신문사
욕설은 금지!!
한울신문
공지사항

편집장 임명 8월 18일 세 번째 모임

2회차 강의와 3회차 강의를 스피드 있게 진행했다.

3회차 강의에 편집국의 취재 체제가 있어 강의 마친 후 '부서 나누기 회의'를 했다.
먼저 편집장과 보조할 부편집장을 선출했다.
6학년 중 편집장 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물으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서로 눈치만 살핀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다 얌전하게 있던, 왠지 글을 잘 쓸 것 같아 보이는 서선화를 지목해서 편집장에 추대하니 모두 좋다고 한다.
5학년 중 부편집장을 맡아 편집장을 도와줄 사람을 물으니 전은지가 손을 들어 부편집장으로 임명했다.
다음은 사진기자와 모든 사진을 책임질 사진부장이 필요하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을 물어보니 세 명이 손을 든다.
배상지, 안혜빈, 문소희 세 명을 사진기자로 세우고 사진부장은 6학년인 배상지에게 맡겼다.

아이들에게 지난 모임 시 촬영한 자신의 얼굴이 나온 한울신문 취재부 기자 명함과 취재수첩을 나눠줬다. 아이들의 얼굴엔 자신들의 명함이 생겼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흥분하는 아이들을 진정시킨 후 7월 4일 프로젝트 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큰 틀을 가지고 상의를 했다.
우리가 만들 신문은 타블로이드판이며 8면이다. 그리고 동네신문이다.
우리가 만들 한울신문은 일반 신문과는 내용과 초점면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런 후 다음 모임까지 자신이 쓰고 싶은 기사의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해 오는 걸 숙제로 줬다.

선생님, 한 시간 더 앞당겨요. 8월 25일 네 번째 모임

강의가 끝난 후 한울신문 1면에서 8면까지 틀에 대한 편집회의를 시작했다.

강의가 길었는데도 아이들의 눈엔 생기가 돈다. 지난 모임에 내 준 숙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왔다는 자부심 때문인가 보다.

1면의 '인물탐방'엔 오시영, 전은지, 문소희가 지원했고, 2면과 3면으로 이어지는 '명소(역사)탐방'은 김은하, 안원모, 안혜빈이 지원했으며, 동네의 가게를 취재하는 '맛집멋집'은 신은지가 지원했다.

4면과 5면은 '오피니언' 면으로 원고 청탁을 의뢰할 기자가 필요한데 박예은이 지원했고, 경제는 김귀현, 환경은 오시영이 맡기로 했다.

6면의 '미담기사'는 나서는 아이들이 없어 토론 끝에 서선화가 맡기로 했으며, '만들어 볼까요'는 전지혜가 맡기로 했다.

7면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동네의 한 달'을 서로 돌아가며 취재하기로 했으며, 네컷만화는 청탁, 퍼즐은 전은지가 맡았다.

8면은 문화면으로 배상지가 책임을 맡고, 문소희와 서선화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면 분배와 아이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니 저녁 6시가 다 되어간다.

모임 때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의식했는지 선화가 다음 모임부터는 한 시간 앞당겨 모임 시간을 늘리자고 한다.

이제 아이들은 기자다 9월 1일 다섯 번째 모임

기사 작성의 기초 강의를 마쳤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 대학에서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15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지도했다. 교육 받은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이젠 실전이다. 실전에서 복습하고 학습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실제적 경험만큼 좋은 교육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창간호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된다.

한울신문 창간호 편집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모임에서 내준 각자 맡은 꼭지대로 '기사거리 찾기' 숙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

"……"

아이들 머릿속이 백지가 된 것일까?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도 닫은 입을 열지 않는다. 편집장이든 부편집장이든 아무라도 한 마디 꺼냈으면 좋으련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무서운 침묵의 시간, 주저하던 시영이가 말을 했다.

"선생님, 환경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써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은 생각인데 '지구온난화의 원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막을 수 있는 방법, 작은 실천'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기사를 쓰면 될 것 같다."

"환경은 주제를 잡은 것 같고 옆면의 경제에 대해서 귀현인 생각해 왔니?"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에게 경제는 막연하고 너무 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기대해본다. 그러나 귀현인 고개만 숙일 뿐 말이 없다.

"쉽게 가자.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경제'에 대한 자료 찾아 읽어 보고, 신문 뒤져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 찾아 보고, 얻은 자료에서 이거다 하는 느낌이 나올 때 주제를 잡는 것은 어때?"

귀현이는 노력해 보겠다며 글을 써서 카페에 올리겠다고 했다.

인물탐방 취재원은 정했는지 질문을 하자 은지가 말을 한다.

"선생님, 누구를 취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구요."

"그렇구나. 그런데 취재는 아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야. 취재를 하다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지. 취재원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땐 우리가 만들 신문의 특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한울신문은 어떤 신문이니? 독자가 누구지? 중앙일간지니?"

"아니요. 태평4동 마을신문이고 독자는 태평4동 주민이고 월간이에요."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만을 취재해 기사를 써서 신문에 내면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대단하다, 신문에 나올 만해. 그런데 이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지 않을까?"

"……"

"생각을 좀더 확장해 보자. '한울신문은 동네신문이고 동네 주민들이 읽었을 때 따뜻함과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누구,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좋겠니?"

"태평4동 사람들 이야기요."

"맞아, 답이 나왔네. 그 답은 지난 모임에서 벌써 나눈 이야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도 막연하고 어렵다는 것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은지는 학교생활을 할 때나 학원 가고 엄마 심부름 갈 때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스쳤니? 기억나는 사람 없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 선생님, 옆집 아저씨, 차가 와도 잘 비키지 못하는 할머니, 미용실 아줌마, 이름은 모르지만 자주 보이는 얼굴들……. 무수한 사람들과 만나며 스쳤을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할게."

"……"

"파출소 옆 정류장 앞에 있는 구두수선 하는 아저씨 얼굴을 본 사람 있니?"

"저 봤어요. 매일 보는 걸요."

"저도 알아요. 우리 집 신발도 거기서 고쳐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구두수선 하는 아저씨를 안다고 소리쳤다.

"그 아저씨를 취재해 봐. 선생님은 그 아저씨가 20년 전부터 구두수선 하는 모습을 지나며 봤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태평4동 주민이잖아. 태평4동에 대해 남다르게 알 수도 있고."

"그렇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취재원은 무궁무진해. 너희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주 가던 가게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인물탐방은 한울신문의 메인 기사가 될 꼭지이다. 한울신문이 바라는 대로 서로 관심 갖고 소통할 수 있게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창구의 역할로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꼭지인 것이다. 각자 맡은 꼭지대로 확인해 보니 '맛집멋집' 을 담당한 신은지가 참석하지 않아 그것만 빼고는 취재할 준비가 되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취재 요청하고 자료를 취합하며 다음 모임 전까지 초고를 카페에 올리기로 약속하고 아이들은 돌아갔다.

이제 아이들은 기자다.
누군가에게 취재를 요청하고 인터뷰해야 하며 기사를 쓸 것이다.

한울신문 1호

'큰 우리'로 자라는 동네 신문

낮은곳으로의 시선 | 태평동에서의 40년

서울을 그리워하며 서다_망경암 | 우진즉석두부

장애인이지만, 사람들의 눈빛 나쁘지 않아

우리 동네는 미술관 | 가을에 즐기는 차와 다식

Mr.지구, 지구온난화로 병들다

꼭 잡아야 할 알레르기성 비염

선생님, 큰일났어요 |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큰 우리'로 자라는 동네 신문

안녕하십니까? 한울신문의 발행인 박건화 인사드립니다.

한울신문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8월 초 12명의 태평4동 어린이 기자들과 기획편집과 디자인을 담당할 전문인 2명, 총 14명의 인원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방송국도 개국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기획, 편집하고 발로 찾아 기사를 작성하는 신문은 신문의 역사상 전무후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가 태평4동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발간되도록 도와주신 성남문화재단과 지역 주민들,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는 금빛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동사무소 직원들,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기사가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4동에서 자라가는 새싹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모아 써놓은 글입니다. 부족해도 기쁜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 취재 요청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울신문은 태평4동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이 오가는 소통의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이곳에 한울신문은 어린이 기자단과 지역 주민들께 격려와 자부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울'의 의미(큰 나무, 큰 나 자신, 큰 우리, 큰 우주)처럼 어린이 기자들과 한울신문이 자생력을 갖고 꾸준한 성장을 하여 지역 주민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박건화 (태평4동 통장협의회 회장)

낮은 곳으로의 시선

얼마 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전시된 성남 작가들의 '우리내(內) 우리전(展)'을 관람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본 김태헌 씨의 작품, '낮은 곳으로의 시선' 문구가 가슴에서 맴돈다.

'낮은 곳으로의 시선'.

작가는 분명 '우리'에 속해 있으나 '우리'가 소외시키는 '소외된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시선'이란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우리는 얼마나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달려 왔는가?

그들도 '우리'인데 '특별하다고 구분해 놓은 '성공한 자'를 바라보며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들은 상대적인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린 별거 아닌 인생이라 생각하며 가치성을 낮춰 놓았던 것은 아닌지 자문의 시간을 가진다.

신문이라는 것도 그렇다. 기사는 독자들을 간과할 수 없기에 뭔가 세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다 보니 자꾸 특별한 것을 찾게 되고 그러함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평범한 일상이 주는 귀함을 놓친다.

옛이야기처럼 되었지만 오래 전엔 '누구네 집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다는 것'이 중앙지의 기사가 된 적도 있었다. 9월 한 달 동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변-신씨의 행적과 그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다.

'한울'에선 너무 먼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누구네 집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대' 같은 소식을 전해 주고 싶다.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우리 이웃에게 시선을 두려고 한다.

박연우 (한울신문 편집인)

태평동에서의 40년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기자들이 찾아간 박찬경(71세) 할아버지의 집, 초록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대문 옆에 묶여 있는 작고 하얀 강아지는 누군지 모를 우리들을 경계하면서도 찾아온 사람이 좋은 듯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태평동의 흔한 골목 중 한 곳 자주 봐온 풍경인데도 유독 도둑 걱정이 없는 것 같은 평안한 느낌이 드는 골목이었다.

강아지의 반김이 요란했는지 짧은 머리의 친근한 미소를 띤 할머니가 나왔다. 박찬경 할아버지의 아내인 고영순(70세) 할머니다. "여보, 기자아이들 왔어요." 하는 소리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쑥스러운 몸짓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청년기를 보내며 그곳에서 결혼하여 살았다. 밥벌이를 찾아 서울 봉천동으로, 또 파주로 옮겼다. 파주에선 규모 있게 건축 일을 했는데 어쩌다보니 파산하여 1969년도엔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빚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그 시절 신도시 개발 지역이었던 성남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땐 깜깜했지, 서울로 나가야 하는데 서울 차 들어오는 종점이 지금 복정동 사거리였어. 그러니 지금 은행동이나 상대원 쪽은 정거장이 얼마나 멀어. 그땐 지금 시청 번화가 쪽보다도 충혼탑 쪽 집값이 더 비쌌어. 그래서 여기다 터를 잡았지."

할아버지는 자신이 신문에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닌데 어쩐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자랑거리 하나 얘기해 달라고 하니 낚시 얘기를 한다. 할아버지는 바다 낚시 전문가다. 80cm가 넘는 우럭을 잡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때 출조한 배의 선장이 그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컴퓨터가 없고 할 줄 몰라 보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바다낚시를 즐기게 된 건 건강 때문이었다 한다. 14년 전 심부전증 진단을 받고 난 후 심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하라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낚시를 하게 되었다.

서해에는 심장에 좋은 오존층이 있어 할아버지는 주로 서해로 낚시를 간다. 바다에 가면 따끔거리던 가슴도 편안해지고 세상 모든 것 잊고 파란 바다만 바라보니 마음마저 파래져 오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경비가 비싸 자주 가지는 못하고 2주에 한 번 정도 나간다.

할아버지가 바다에 갔다 오면 가족들과 오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 "자연산 회가 얼마나 비싼데, 40cm 넘는 것 한 마리면 몇 kg이고, 돈이 얼만데…. 그러니 우린 얼마나 부자인거야?"라며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엔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순함이 넘친다.

일을 따라 유랑하던 젊은 날의 마지막으로 터잡은 태평동에서의 40년, 박찬경 할아버지는 미루나무처럼 꿋꿋하게 4남매를 키우고 장성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만들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전지혜, 문소희 기자 (금빛초 5)

서울을 그리워하며 서다

산들 바람과 작은 다람쥐를 뒤쫓아 좁은 길을 가다보면 보이는 사이사이 숨은 샛길들이 불러오는 궁금증. '누가 지나갔던 길일까?' 그 궁금증을 뿌리치고 올라간 곳이 망경암이다.

망경암은 '서울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 이름처럼 망경암에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망경암은 고려 말기 무악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져 오는데 망경암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조선 제4대왕인 세종의 여덟 아들 중 일곱째인 평원대군과 그의 양자 재한대군이 성남으로 유배되어 왔을 때 망경암에서 나라의 평안을 빌었다고 한다. 이 때 기도문을 비에 새긴 것이 14개가 있었는데 지금 전해내려 오는 것은 2개뿐이다.

망경암에서 한양을 보던 평원대군의 마음은 매우 슬펐을 것이다. 처음 망경암에 갔던 날 비가 내렸다. 그 빗물이 마치 왕자들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망경암에는 대웅전과 미륵전, 칠성대 그리고 삼성각이 있다.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고 미륵전은 미륵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칠성대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칠성제를 지냈던 곳이다. 그 옆에 있는 동자상을 보니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고 웃음이 나온다. 삼성각은 산신, 칠성, 독성 세 분의 성현을 모신 곳이다.

"마애는 돌에 새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래는 부처님을 말한단다."

망경암 주지스님은 망경암에 있는 문화재 마애여래좌상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마애여래좌상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좌상은 부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바위에 새겼는데 높은 바위에 새겨져 있어서 '누가 저렇게 험한 곳에 올라갔을까?' 하는 의문이 솟아오르게 한다.

마애여래좌상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다. 이 연못에 물이 차면 좌상의 모습이 비친다. 그 때문에 '불영지'란 이름이 붙었다. 불영지 옆에는 5층 석탑과 키가 33척(약 10m)이나 되는 거대한 불상 정토미륵대불이 있다. 5층 석탑에는 12지신이 조각되어 있는데 옛 조상들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망경암에는 작은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부처님의 복을 받은 우물이라는 뜻의 '복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영향을 받아 동네 이름이 '복정동'이 되었다.

미륵전 맞은편에는 망경암 보호수가 있다. 보호수는 300년이 넘은 오래된 느티나무이다. 높이는 25m, 둘레는 2.5m나 되니 정토미륵대불보다 큰 키의 나무이다. 높은 키만큼 그늘도 넓어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좋았다. 느티나무 아래 서서 생각을 하니 시골 마을마다 정자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까닭을 알 것 같다.

망경암은 봉국사 뒷길로 10분 올라가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망경암을 아시나요?' 하고 물으면 옆으로 고개를 젓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도 보고, 나라를 사랑한 왕자들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망경암에 오르지 않을까?

김은하, 안혜빈, 안원모 기자 (금빛초 5)

우진즉석두부

태평4동에는 이태규 씨가 운영하는 우진즉석두부집이 있다. 가게는 작고, 찾아 오는 손님이 적지만 이태규 씨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한다.

이태규 씨가 알려 준 '맛있는 두부' 만들기

1. 가끔 저으며 콩을 불린다.

2. 깨끗이 씻고 마세기에 간다.

3. 두유를 여과시켜 끓인다.

4. 응고제를 넣는다.

5. 성형틀에 넣어 굳힌다.

6. 두부를 잘라 판매한다.

우진즉석두부가게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 마세기와 성형틀. 마세기는 콩을 가는 기계이고, 성형틀은 두부 모형을 만들 때 쓴다. 그 기계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묻자 아예 두부 만드는 법까지 알려 줬다.

가장 먼저 콩을 불린다. 이 때의 주의점은 가끔씩 저어 주어야 한다.

두번 째 단계. 불린 콩을 깨끗이 씻어 마세기에 넣어 간다. 콩을 그냥 갈면 고운 모양이 나오지 않으므로 꼭 마세기로 간다. 콩을 간 후에도 가끔 저어 준다.

그 다음 두유를 여과시켜서 100도 정도가 될 때까지 끓인다. 뜨거우므로 여과시켜서 나올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다음엔 응고제를 사용해서 저어주고 천으로 덮는다. 이 때 두꺼운 천으로 덮어야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천으로 덮은 채로 5분 정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천을 빼고 여과시킨 두유를 두부 보자기에 담은 다음 성형틀에 붓는다. 성형틀에 부은 두유는 수건으로 감싸고 성형틀을 밑으로 내려 네모난 두부모양을 만든다.

2-3시간 정도가 지나면 성형틀을 올리고 두부 모양이 만들어졌나 확인한다. 다 만들어진 두부를 꺼내어 판매한다.

그는 두부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 텐데도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방부제 없는 두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뿌듯하다며 웃는다.

이태규 씨는 두부를 판매할 때도 신속히 챙겨준다. 그러면 손님들은 좋은 표정으로 두부를 사가는데 손님들이 행복해 하는 것 같아 힘이 난다고 한다.

신선한 두부를 만들며 행복해 하는 이씨의 마음과 정성 때문일까? 두부를 사가는 손님들은 한결같이 맛이 좋다고 칭찬한다.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장애인이지만, 사람들의 눈빛 나쁘지 않아

성남초등학교 앞에는 가판대가 있다. 좁은 공간에 오밀 조밀 진열된 물건들은 손님을 기다리는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부지런한 주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가판대 앞에 서 있으니 인상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나온다. 가판대를 운영하는 서용식(38세)씨다. 다리가 아프신지 편안한 걸음이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몸에 장애가 있다. 지체장애 1급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건강한 사람들보다 배나 노력하고 힘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

가판대의 특성상 많은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 수 없다. 주변엔 대형 마트도 있어 가판대를 찾는 손님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대형 마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한다.

가판대를 찾은 사람이 가판대가 닫혀 있어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버스카드를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게 하기 위해 그는 밤 12시까지 일을 한다. 잠이 부족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는 밝게 웃는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장애인이란 걸 알죠. 그래서인지 카드 충전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 분들 참 고마워요."

간혹 그를 불편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에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서선화 기자 (금빛초 6)

마을의 한 달

우리 동네는 미술관

요즘 골목을 걷다보면 이색 풍경이 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멋진 그림이 벽에 붙어있다. 보통 그림들은 집안에 두고 혼자서 아끼며 보는 것이 상식인데 집 주인의 취향이 독특하다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설명이 있다.

태평4동에는 미술 전시관의 전시처럼 작년 가을부터 고흐, 고갱, 샤갈, 장욱진 등 유명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성남의 작가들이 유명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모사한 것으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전시한다.

관계자인 김성수(39세, 성남민미협지부장) 씨는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 멀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어요. 성남엔 작은 미술관 하나 없죠. 멀리 있는 전시관을 찾아 그림을 감상할 만큼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명으로서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성남의 작가들이 모여 작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다. 태평4동이 시발점이다. 올해에는 태평동, 복정동, 신흥동을 감싸고 있는 영장산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장산은 공원이 부족한 태평동의 쉼터와 같은 곳이다. 영장산 약수터로 물을 길러 다니는 주민이 많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작품이 전시될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태평4동의 규모에 비하면 작품 수가 적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점이 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동네 자체가 미술관인 것이다.

소슬 바람이 부는 청명한 가을,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산책 삼아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선화 기자 (금빛초 6)

만들어봐요

가을에 즐기는 차와 다식

≪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라고 부르는 음료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차는 녹차, 홍차, 오룡차 등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를 말하며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차를 생산한다. 이 외 흔히 전통차라고 부르는 인삼차, 대추차, 유자차, 모과차 등을 차의 대용으로 마시기도 한다.

차의 효능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는 5000여 년 전부터 마셔왔다. 차에는 항암효과와 풍부한 유기물로 노화를 억제한다. 레몬의 5배나 되는 비타민 C를 가지고 있어 피부미용에도 아주 좋다. 니코틴 해독과 숙취 제거 충치예방 등에도 좋다.

또 차를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양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무슨 차를 마실까?

차도 자신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 골라 마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차는 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한 사람은 우롱차, 홍차와 같은 발효차를 마시는 것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녹차를 마시면 좋다.

가을엔 계절을 음미할 수 있는 국화차나 두충차, 오가피차, 둥굴레차 등이 좋다.

차(녹차류) 음용법

물을 끓여 식힌다. 물이 80도 정도로 식으면 차를 넣어 둔 다기에 부어 2-3분이 지난 후 잔에 따라 마신다.

≪다식≫

다식은 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우리나라 전통 과자인데, 부드럽고 종류가 많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 중 옥수수 다식은 맛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다식을 처음 먹는 사람에게 좋다.

옥수수 다식 만들기

재료 / 옥수수가루, 꿀, 다식판(모양틀), 볼, 나무 숟가락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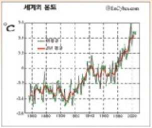
1. 볼에 옥수수가루 한 컵을 부어서, 꿀 5스푼을 넣고 나무 숟가락으로 젓는다.
2. 손으로 반죽을 하되, 반죽이 하나의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한다. 반죽이 되더라도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질어져 맛이 없다.
3. 구슬만큼 떼서 다식판 또는 모양틀에 꾹꾹 누른다. 참기름을 조금 뿌리면 다식이 판에 붙지 않는다.
4. 다식을 떼서 예쁜 접시에 담는다.
5. 차와 함께 먹는다.

옥수수 다식 외에도 콩가루나 전분, 검은깨가루, 송화가루를 넣어 만드는 다식도 있다.

차를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맞게 마시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가을, 다식을 곁들인 차 한 잔을 마시며 건강도 지키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자!

전은지, 오시영 기자 (금빛초 5)

Mr. 지구, 지구온난화로 병들다



지구의 온도가 단 5도만 높아져도 동 · 식물들은 거의 멸종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켜낼 방법은 없을까?

지구온난화란

온실효과를 말한다. 온실효과란 지구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성분이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외부로 복사되는 것을 차단하여 지구의 온도가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온실효과는 본래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지구생태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현재의 의미는 산업화에 따라 자동차와 공장 매연 등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내서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엔 열대야가 심하고 극심하게 더운 날과 추운 날이 늘어난다. 기온상승으로 물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어느 특정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때, 봄과 여름에 하천 유량이 증가해서 홍수가 잦아진다. 한편 대청댐, 안동댐, 남강댐, 섬진강 댐에서는 겨울철에 하천 유량이 감소되며 유량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쌀 생산량이 광주를 포함한 남부 논농사 지대에서 30%, 수원 지역에서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90년간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온은 0.8±0.3℃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경향이 다음 세기에도 유지된다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약 1.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방안

첫째,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한다. 냉 · 난방온도 1℃를 줄이면, 에너지 10%가, 주택에 단열재를 사용하면 냉 · 난방비용이 30–50% 절약된다. 또한 조명기구를 절전형으로 바꾸면 2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 예를 들어 친환경 생리대(세탁하여 재활용하고, 편하게 개조된 생리대이며 생협에서 판매한다.)나 천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할때보다 소각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재활용을 하자. 온실기체 중의 하나인 메탄은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재활용을 하면 자연히 쓰레기가 줄고, 메탄의 양도 줄어든다.

넷째, 나무를 많이 심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주므로, 나무가 많아지면 그만큼 온실기체가 줄어든다.

지구를 살리는 일, 우리의 몫이다. '내가 먼저 하자'는 결심으로 실천해 보자.

오시영 기자 (금빛초 5)

꼭 잡아야 할 알레르기성 비염

오염된 환경과 먹을거리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환절기인 요즘, 성장 발육을 저하시키고 각종 후유증을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알아본다.

정의_ 알레르기성 비염은 호흡 중에 콧속으로 흡인된 특정한 항원에 대해 콧속의 점막에서 일련의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증상_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가 계속되며 코가 계속 막히고 맑은 콧물이 흐르며 심한 가려움이 계속되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감기를 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후유증_ 알레르기성 비염이 몇 년씩 지속되면 아이들은 코로 숨을 쉬는 비강호흡을 못하게 되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만성 축농증으로 발전하며, 정서불안, 주의산만 등이 오기 쉽다. 또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져 학습능력에 장애가 생긴다.

예방과 치료법_ 알레르기성 비염은 다양한 질환을 동반할 수 있어 조기치료 하여야 한다. 가족 중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기르지 말고 카페트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햇빛에 말려주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생활수칙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기상 후 간단한 체초하기, 청소를 자주 하고 환기에 신경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먹지 않는다.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 중 비염 키트 치료가 있다. 비염키트의 구성은 분말용 환약, 연고, 코세척제, 코코환 등이 있다.
약을 쉽고 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분말 형태로 처방하는 분말 환약, 코 안 벽에 얇게 발라서 코 점막 상태를 개선시키고 염증을 치료하는 연고(청열고), 코 안 점막에 발라서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코세척제(비염수)와 코 안에 깊게 넣어서 농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코코환이다.

자료제공 대추발한의원 |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선생님, 큰일났어요

한 주 내내 어린이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선생님, 취재 요청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우선, 너의 신분을 밝히고 한울신문에 대해 설명한 후 취재 요청을 해야지."

"그 다음은요?"

"서로 편한 시간으로 인터뷰 일정 잡고 약속한 날짜에 가서 취재하면 되지."

"전화해서 한울신문 서선화 기자라고 밝히고 선생님이 소개해 줘서 인사차 방문한다고 해."

한 아이와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또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저 선화인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복지과 이귀완 팀장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전화해서 한울신문 서선화 기자라고 밝히고 선생님이 소개해 줘서 인사차 방문한다고 해."

"저 혼자 가요?"

"혼자 가면 안 되니? 영 불편하면 상지나 예은이 둘 중 아무한테나 연락해서 같이 가도록 해, 알았지?"

"동사무소 가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동사무소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미담기사 취재원 정보 받은 후 취재원에게 전화해서 인터뷰 일정 잡아야지. 선생님이 이귀완 팀장님한테 미리 부탁해 놨으니깐 걱정 말고 찾아가 봐."

"아, 그렇군요."

삼십분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높아진 걸 보니 신명이 나는 듯하다.

"선생님, 저 이귀완 팀장님 만나서 취재원 소개받았어요. 그런데요. 동사무소에 들어가니까 모두 저희만 쳐다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이귀완 팀장님은 쉽게 찾았니?"

"어디 계신지 잘 몰라서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서 말씀드리니깐 가르쳐 주셨어요. 무척 친절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 수고 많았네. 해 보니까 별거 아니지?"

"선생님, 큰일났어요."
"왜?"
"취재원이 인터뷰 안 하겠대요."

"예."
"미담기사 취재원은 어떤 사람이야?"
"장애인인데 가판대에서 장사한대요."
"그렇구나. 그럼 연락해서 취재 일정 잡아야지?"
"매일 장사를 해서요. 아무 때나 찾아가서 취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귀완 팀장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대요."
"잘 됐네. 그럼 언제 갈 거야?"
"상지랑 오늘 가려구요."
"그래, 그럼 취재 잘 하고 기사 써서 올려봐. 상지한테 사진 여러 각도로 잘 찍으라고 얘기해 주고. 수고해."
선화는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아이다. 그런 성품을 지녔는데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지만 아이는 해냈고 하고 나서의 성취감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벨이 울린다. 혜빈이다.

"선생님, 큰일났어요."
"왜?"
"취재원이 인터뷰 안 하겠대요."
"뭐? 무슨 말이야? 예전에 다 허락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은지 바꿔 드릴게요."
부편집장인 전은지가 옆에서 자기를 바꿔달라고 한다. 속이 답답했나 보다.
"선생님, 저 은진대요. 구둣방 아저씨가 인터뷰 할 수 없대요."
"마감이 코앞인데 웬일이니?"
"어쩌죠?"
"약속해 놓고 찾아가면 내일 오라 몇 번을 그러더니…. 인터뷰를 못 하겠으면 처음부터 거절하던가.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러게요. 어쩌죠 선생님?"
"어쩔 수 없지, 그만 철수하고 내일 모임 빨리 끝낸 후 나하고 같이 가자."

정말 큰일이다. 인터뷰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처음부터 거절하면 좋았을 것을. 그래야 다른 취재원을 찾아 봤을 텐데…….
아이들이 몇 번을 방문하게 하고, 미리 질문거리를 주면 집에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인터뷰 하겠다며 시간만 끌더니 결국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 인물탐방이 한울신문의 메인인데 메인기사가 빈 공백? 하늘이 노랗다.

다음날, 9월 8일 모임날이다.
모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구두수선실을 찾아갔다. 아이들과 모임하기 전에 먼저 구둣방 아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이럴 수가? 구두수선실 문이 아예 닫혀 있다. 회의를 마치고 아이들과 같이 취재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방법은? 누구를? 절차 다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취재 요청할 때 흔쾌히 들어줄 평범한 소시민인 태평4동 주민은 누굴까?
아버지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낚시 좋아하는 나의 아버지.
고민하며 아이들과 만났다.
초고를 보기로 했는데 기사는 달랑 두 개다. 환경꼭지와 경제꼭지. 그런데 경제꼭지는 초점을 못 잡았는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사였다.
회의 중 경제꼭지가 어려워서 건강꼭지로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경제꼭지가 없어졌다.

대부분 취재는 했는데 기사 원고를 쓰지 못한 상태였다. 기사마감일을 다시 한 번 공지하고 담당꼭지에 이름붙이기를 숙제로 냈다.
공백은 '인물탐방' 과 '맛집멋집' 이다. 신은지가 아무 연락도 없이 또 안 나왔다. '맛집멋집' 꼭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애꿎게도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기자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의를 들었다. 결국 한울신문 1호 '맛집멋집' 꼭지 '우진즉석두부' 는 귀현이가 취재하고 썼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9월 27일

2007년 9월 27일 한울신문 1호, 창간호가 나왔다.

초산의 산모처럼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지난 한 달이었다.
산파도 힘들었다. 그 과정 속에 사진부장인 배상지가 떠났다.
촬영한 사진을 쓸 수 없다고 퇴짜 맞고 재촬영 두 번 하더니 힘이 빠졌나 보다.
엄마가 공부에 전념하라고 한다며 기자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체격이 좋고 듬직한 여장부 같은 아이였다. 사진기자가 제격인 것 같아 많이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떠나갔다.
첫 번째 만든 '한울신문' 은 난산이었다. 기자들의 원고는 대부분 올라오는 대로 교정의 칼날을 받았다. 같은 기사의 원고가 보통 서너 번씩 오르내렸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예쁠까?

9월 27일 아이들은 환호했다. "정말 우리가 만든 것 맞나요?"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발행인 박건화 씨가 기념으로 다과를 준비해 주며 같이 기뻐해 줬다.
글쓰기가 부족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라도 어쨌든 세상에 나왔기에 기자들은 행복한 것이다.

신문 배부를 하기 시작했다.
총 2,000부 중 10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30부씩 나눠줬다. 600부는 박건화 씨가 통반장에게 전달하여 각 세대로 배부되었다. 동사무소에 100부, 금빛초등학교에 500부, 6학년 대상으로 배부될 것이다. 김성수 100부, 박연우 100부, 취재원들에게 보낸 것 300부 그중 150부는 '망경암' 에 갖다 줬다.
'망경암' 을 취재한 김은하 기자, 안혜빈 기자와 함께 망경암에 신문을 들고 갔을 때 몇 명의 방문인들이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이 기사를 취재하고 썼다는 사실을 알고 기자들 칭찬을 멈추지 않았다. 신문을 유심히 살피며 읽던 한 사람은 인물탐방 꼭지 기사의 박찬경 씨를 본 적 있냐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울신문 2호

우리동네 주민들의 고민 해결사! 정병주 위원장을 만나다

둔촌 이집선생 사당 | 작은 미용실의 특별함

아이들과 함께한다

사랑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참사랑의 집

들꽃 속으로 풍덩~ | 영장산의 숲속 미술관

빼빼로 만들기 | 적조 현상

피부 클리닉, 요실금 치료법 | 중간고사 | 감사는 선택입니다

발족식 일정잡기 | 독자칼럼

단청슈퍼 | 발족식

'둔촌사당' 취재 날 | 신문을 구겨놨어요

우리동네 사람 |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 정병주

우리 동네 주민들의 고민 해결사!

정병주 위원장을 만나다

동사무소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조심스레 들어가니 미소를 띠며 반기는 여직원 언니는 누굴 찾아왔냐며 반갑게 맞아준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회의중이어서 잠시 기다린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

정병주(67세)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인자한 얼굴에 부드러운 말투로 떨리던 우리 가슴을 진정시켜 주셨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바라는 의견 등을 확인하고 받아주고, 그런 대책사항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알리고,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그 일에 앞장서는 곳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강사와 시간을 맞춰 배정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총 관리하는 곳이다.

주민자치 센터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운영한다. 민원사무처리를 하는 민원행정실과 종합자료 검색공간인 인터넷 정보방, 주민들의 취미교실, 각종 강연과 교육, 공연을 하는 다목적 회의실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친목을 도모하는 주민사랑방 등이다. 주민들의 취미생활을 생각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

정병주 위원장님은 "위원장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악취가 나지 않게 직접 청소를 하는 일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항상 그 일을 하시면서 즐겁고 기쁘다고 하신다.

하지만 태평4동 동사무소가 오래된 건물이라, 많이 낡았고 공간도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을 더 많이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 아쉽다고 하신다.

위원장님께 태평4동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쭤 보았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비하면 지금의 성남은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가 옛날엔 황무지 같았다니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또한 정병주 위원장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의 기둥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불량한 마음을 버리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떼를 씁니다. 부모님도 그 시절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주지 않는데, 기어코 그 물건을 사야만 하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다 보는 데서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고, 돈을 뺏는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어른들이 가르치고 시키는 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을을 위해 항상 즐겁게 일하시는 정 위원장님은 끝으로 태평4동을 더욱 깨끗하게 만드실 것을 다짐하셨다. 더욱 깨끗하고 행복한 우리 태평4동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다

오시영, 문소희, 안혜빈 기자 (금빛초 5)

둔촌 이집선생 사당

하대원 이튼 빌 아파트 뒤쪽에 나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300m 정도 올라가보면 둔화문이라는 커다란 문이 있다. 이 문이 바로 둔촌 이집선생의 사당 입구이다. 멀리서 볼 때도 그랬지만 계단을 올라가서 보니 더더욱 웅장해보였다.

관리자를 찾아보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그는 이집선생의 20대 후손으로 성함은 이용순. 연세는 75세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가 사당을 직접 관리한다고 했다.

이집선생의 사당은 1998년 성남시가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재사 및 고옥을 세우고 광주 이씨 대종회가 영정을 봉안하였다. 둔촌 이집선생 묘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둔촌 이집선생은 고려 말기 문인이자 학자로 고려 충숙왕 14년(1327)에 출생하였으며 충목왕 3년(1343) 정혜에 급제하였다. 그 후 1387년 향년 60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감하셨다.

공민왕 17년에 신돈을 피해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개성에서 영천으로 가 친구 최원도의 집에 숨었는데 잠시 현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둔굴'에 몸을 숨겼다고 한다. 136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구 최원도가 마치 자기 아버지의 무덤처럼 잘 돌보아 줬다고 한다.

그 후 1371년 신돈이 죽고나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둔촌선생 제실의 정문인 둔화문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둔화문은 도망할 둔(遁), 화할 화(和),문 문(門) 자로 이는 '이집선생께서 신돈을 피해 도망쳤다가 모든 일이 잘 되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이집선생은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도은 이숭인 등 오촌 팔청 구일 도의로서 사귀었다. 여기서 오촌 팔청은 '촌'이라는 호를 가진 5분과 8분의 청렴결백한 분을 말한다.

이집선생의 시고는 2권이 전해진다. 이중 둔촌유고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 『'讀書可以悅親心 (독서가이열친심)'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면이자자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노의무능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浸浸 (두가세월고침침)' 머리 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 주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는 둔촌 이집선생께서 건립하신 구암서원이 있다. 대원군 때 철거되었는데 지금은 복원 예정이라고 한다. 구암서원은 서울(한양)에 건립된 유일한 서원이다.

둔촌 이집선생 묘는 우리의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다. 지난번 기사에 나온 망경암도 이번 기사에 나온 이집선생의 묘도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사라지고 말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다. 이 기사를 읽고 우리의 유산을 바로 알고 지키기 위해 둔촌 이집선생 묘에 가 보는 것은 어떨까?

김은하, 안혜빈, 안원모 기자 (금빛초 5)

맛집 멋집 | O.C 요술가위

작은 미용실의 특별함

금빛 초등학교 후문에서 시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작고 평범한 미용실을 볼 수 있다. 바로 'O.C요술가위'. 이 미용실의 겉모습은 다른 미용실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특별함이 있다.

이 미용실의 주인은 오지선(40세) 씨. 오씨는 보조 스텝 등을 제외하고도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미용사이다. 사람들의 머리를 요술처럼 바꾸어주는 오씨. 그에게 머리를 하고 마음에 든다는 말을 들을 때는 보람을 느끼지만 힘든 점도 있다.

"저에게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머리 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서 그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데도 고집해서 할 수 없이 해 주면 안 예쁘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요즘엔 어떤 머리를 많이 하냐고 물으어보니 울프 컷을 샤기 느낌으로 치는 울프 샤기가 유행이라고 한다. 또 가을인 요즘엔 정전기도 많으니 단정하면서도 멋스러운 볼륨웨이브를 추천해 주었다.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베테랑 미용사 오씨에게 머리를 잘하는 노하우나 손님을 끌어들이는 노하우를 물었다. 대답은 평범하다. 그저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오씨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손님에 대한 친절이 가장 큰 노하우인 것 같다. '요술 가위' 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닐까?

전은지, 김귀현 기자

아름다운 봉사 | 차미정

아이들과 함께한다

삼성 어린이집 앞에는 우리함께웃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그곳은 분당우리교회가 부모님이 일을 나가면 혼자 밥 먹고, 놀고, 혼자 공부하면서 부모님 얼굴을 많이 못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었다.

우리함께웃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열자 차미정(37세) 씨가 우리들을 반겼다. 그는 1년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차미정 씨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해 주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잘해 주고 싶어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하기 싫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 지도부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 게임, 공부 등 다양하게 활동영역을 넓히니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차미정 씨는 "공부할 때 산만한 아이라도 다른 놀이를 할 때에는 신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봐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과 상관 없이 모든 아이들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차미정 씨에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를 묻자, 활짝 웃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이렇게 좋은 걸 많은 분들이 같이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작은 바람까지 이야기한다.

전지혜, 안원모 기자 (금빛초 5)

사랑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참사랑의 집'

인화병원 사거리에 김성수 목사가 운영하는 '참사랑의 집'이 있다. '참사랑의 집'은 집이 없고 병들어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곳이다.

이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고, 천사 같은 마음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를 그리워하고 형제와 이웃을 그리워하고 있다.

김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사랑의 집'은 1995년 12월 1일에 설립하였다. 이곳에는 사회복지사와 총무 등 4명의 직원 그리고 정신지체, 뇌성마비, 지체장애 등 여러 장애인들까지 총 24명이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다. 김 목사도 이곳에서 생활하다시피 한다고 한다. 혹시나 돌발 사고가 있을까 해서이다.

김 목사가 힘들 때는 장애인들이 아플 때, 그리고 언어가 전달되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항상 보람을 느낀다. 이곳 '참사랑의 집'에서 사는 많은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 즉 인맥 관계를 통해 모였다고 덧붙여 말했다.

'참사랑의 집'은 사무실과 상담실이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방이다. 그곳에는 휠체어 6개와 전동 휠체어 2개가 있었다. 휠체어 들은 옥상 같은 곳에 놓을 자리가 없어 실내에서 보관하고 있다.

김성수 목사는 사는 날까지 계속 '참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좋은 후계자를 만나서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서선화, 박예은 기자 (금빛초 6)

들꽃 속으로 풍덩~

2007년 10월 20일(토)-21일(일) 경기도립 성남 도서관에서 열린 들꽃 전시회는 청소년 동아리 마음밭과 디딤돌에서 주최한 행사이다. 마음밭 동아리는 들꽃에 관심이 많고 들꽃 학습을 하기 위한 학생들의 모임이다.

1년 동안 학습을 한 학생들은 마지막 기념을 하기 위해 '들꽃 전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들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소개를 받은 천성우(15세, 성일중) 학생은 전시된 여러 들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천성우 학생은 "동아리에서 들꽃 산행을 하며 자연스레 들꽃과 친해졌어요. 전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들꽃 산행을 해요.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산만했던 성격도 고쳐졌어요."라고 한다.

마음밭을 지도하는 자원봉사 선생님 천종구(47세) 씨는 "1년 동안 아이들이 들꽃 산행과 들꽃 가꾸기를 하면서 컴퓨터 게임보다 들꽃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어서 기뻐요."라고 말했다.

이 들꽃전시를 통해 마음밭 동아리 학생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더욱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이를 통해 들꽃에 관심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건강에 좋은 들꽃 산행을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시영, 안혜빈, 오한홍 기자 (금빛초 5)

영장산의 숲속 미술관

'성남 민예총'은 '태평4동에서 태평동락하세'의 1차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우리동네 벽화 미술관'에 이어서 2차 프로젝트 '작은 숲속 미술관'을 계획하고 있다. '작은 숲속 미술관'은 영장산을 미술작품으로 예쁘게 꾸미고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이다.

'작은 숲속 미술관'은 숲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이어진다. 먼저 영장산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주변에 벽화가 그려진다. 또 영장산 산책로에 있는 7개 정도의 정자에 주민이 참여하여 현판 설치 작업을 할 것이다.

산책로로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는 김태헌 작가가 만드는 느릿느릿 달팽이 가족 이야기 '영장산 느림보'를 설치할 것이다.

산책로에는 나무로 만든 작품 '나는 물고기'를 설치한다. '나는 물고기'는 홍황기 작가의 작품으로 산책로를 따라 약 80여 점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고기를 제작하여 설치할 것이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는 또 다른 작품이 있다. 김성수 작가의 풍경 작품 '바람소리길'이다. 이 풍경 100여 점이 걸리게 되면 산책길에 나선 주민들은 바람따라 흔들리는 풍경이 들려주는 맑고 아름다운 노래에 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장산 입구에는 한유진 작가가 주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비는 6미터 높이의 솟대를 만들어 설치할 예정. 이돈순 작가는 영장산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링 잡고 비틀기' 위에 '삐약이 가족'을 설치할 예정이다. 철판으로 만들 삐약이 가족은 닭과 병아리 가족을 표현했다.

그런데 '작은 숲속 미술관' 총 책임을 맡은 '민미협' 성남 지회장 김성수 씨는 이러한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전한다. 모든 작품을 11월 10일에 설치할 예정인데 공원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자연훼손이 염려되고, 작품을 영구히 설치하게 되면 사후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을 설득한 후 문화예술과에 접수할 예정인데 과정이 순조롭기를 바랄 뿐이다.

동네 가까운 곳에서 미술 작품을 느끼기 위해 시작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자연과 더불어 있는 작품을 감상하는 여유를 느끼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느 날 문득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한 번쯤은 우리 동네를 돌아보라. 거기 쉼의 공간이 있다.

서선화 기자 (금빛초 6)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

빼빼로 만들기

빼빼로 데이는 1994년 부산에 있는 중학교 여학생이 1이 4번 겹쳐지는 11월 11일, '키 크고 날씬하고 예뻐져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쁜 빼빼로를 친구에게 선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해가 거듭하며 확산되어, 지금은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답니다. 이제, 빼빼로데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데이~ 빼빼로가 여러분의 사랑과 우정의 메신저가 되어드릴게요.

준비물 스틱형 과자, 초콜릿, 짤주머니, 스프링크(하트, 별), 아몬드 분태, 각색 블로썸, 중탕할 냄비 등

만드는 법

1. 초콜렛을 으깨고 냄비에 담아 중탕으로 살짝 녹인다.
2. 초콜렛을 스틱형 과자에 붓는다.
3. 비닐이나 테프론 시트에 올려서 스프링크, 아몬드 분태, 블로썸 등으로 자신이 꾸미고 싶은대로 꾸민다.
4. 아몬드 분태를 스틱형 과자 위에 솔솔솔 뿌려 준다(아몬드 분태는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주면 더욱 고소하다).
5. 여러 가지 색상의 블로썸을 스틱형 과자에 뿌린다.
6. 짤주머니에 초콜릿이 녹은 것을 넣고 과자 위에 여러가지 모양을 그린다.
7. 만든 빼빼로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 식힌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빼빼로 완성!!

전지혜 기자 (금빛초 5)

적 조 현 상

적조란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바닷물의 색깔이 갈색, 적색, 황색 등으로 변색되는 자연현상이다.

적조는 물의 움직임이 완만하거나 강 하류,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등지에서 많이 일어난다. 육지에서 흘러간 폐수 속에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중금속이나 유기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적조현상의 정도가 약하고 일어나는 일도 별로 없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지금은 인구가 늘고 공업이 발달하여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먹이의 수가 늘어나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플랑크톤은 물 속의 산소를 빨아먹고 물고기가 떼지어 죽게 만든다.

적조현상은 최근 5년간 남해안 연안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그곳은 고밀도 양식장으로 상당한 이물질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적조현상이 여름에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장마철에 육지의 흙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육지의 충분한 양분이 바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플랑크톤이 모여 든다. 이처럼, 플랑크톤도 양분을 많이 얻으니까 그만큼 번식을 활발히 해서 더욱 플랑크톤의 수가 늘어난다.

적조현상이 생기면 황토를 뿌리는데, 그 이유는 황토 속의 알루미늄 성질이 적조생물 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적조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적조현상의 주범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 적조가 일어나는 원인이 폐수이고, 우리가 폐수를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에게 피해를 주니까 자연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같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폐수를 줄이고 물을 아껴야 한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푸른 바다랑 물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지구의 멸망도, 사람들의 최후도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오시영 기자 (금빛초 5)

피부 클리닉

피부병이란 피부질환이라고도 한다. 피부는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으므로 외계로부터 자극이나 여러 병원체에 직접 접촉될 기회가 많고, 체내의 영향도 강하게 받는다. 즉 몸에 생기는 병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 치료법

스킨스케일링_ 환자에 특성에 따라 약물을 결정하여 시간과 강도가 달라지는 얕은 박피술, 여드름, 흉터, 넓어진 모공, 잔주름, 기미, 잡티 등 모든 피부에 매우 효과적이다.

도트 필링_ 특수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하는 박피치료. 패인 흉터, 넓어진 모공에 효과가 있다.

해초박피_ 100% 천연 해초 추출물로 하는 맛사지. 각질제거와 박피효과가 있다. 여드름 흉터, 잔주름, 잡티, 두껍고 칙칙한 피부, 노화된 피부에 좋고 부작용이 없다.

바이탈 이온트 치료법_ 이온 영동기기를 이용하여 비타민C 및 기타 특수약품을 침투시켜 기미, 피부얼룩, 색소 침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요실금 치료법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요실금은 원인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흔하다.

요실금 치료

TOT수술_ 요도나 방광에 손상을 주지 않는 수술방법으로 요도, 방광의 손상을 확인하는 요도방광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수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TOT수술은 부분국소마취로 10-15분 정도에 완전히 끝난다. 수술 자국도 없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제작되어 이물감을 전혀 주지 않는다.

요실금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려면 약물이나 골반운동,전기자극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도 있다. 이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 여성 요실금에서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이지만, 요실금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나 젊은 여성일 때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전기자극을 이용한 바이오피드백 요법도 효과적이다.

자료제공_ 청 피부 비만 클리닉 |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중간고사

10월 16일, 금빛초등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렀다. 열심히 공부를 한 아이들과 그냥 망쳐야지 포기하는 사람, 망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 등 여러 모습이 보인다. 다들 떨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1교시_국어시험 때 조용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다들 예전보다 국어시험이 쉬웠다며 문제를 쉽게 풀었다고 했다. 자신들이 외운 것보다 예상 외로 쉬운 것들이 나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2교시_수학시험 때 계산할 문제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문제를 끝까지 못 푼 사람도 있었다. 틀린 것 대부분이 단위를 잘못 쓰거나, 나눗셈을 하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것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3교시_사회시간 때 여러모로 외워야 할 것이 많았는데 못 외운사람은 많이 틀렸다. 외운 사람은 많이 맞고 못 외운 사람은 조금 맞았다. 그래도 사회는 비교적 쉬웠다.

4교시_과학시간에는 문제가 쉽게 나와서 빨리 푼 사람은 오래 엎드려 있어야 해서 지루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끝내주셨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검토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속이 시원한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좋고, 못 본 사람은 싫은 것이다. 선생님은 나중에 학기말평가에는 잘 검토하고 보며 좋은 점수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감사는 선택입니다

박재한 (태평4동 거주, 분당영광교회 부목사)

한 아주머니가 가난한 가정에 시집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로 더욱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암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한숨과 함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못난 남편에게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암으로 죽는구나"라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들어오는것조차 싫었습니다. 손에 닿는 물건을 집어 남편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눈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섞인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의 선배 언니가 오셔서 노트와 볼펜을 주면서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이 노트에 네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 봐!"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노트를 내동댕이쳤습니다. "내가 고생만 해서 이렇게 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감사할 일이 어딨어?" 라며 서러움에 북받쳐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아주머니 눈에 선배 언니가 주고간 노트가 보였습니다. 노트를 펴고 '내게도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을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 하나 떠오르는 대로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암으로 죽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건강하니 감사, 가난해도 굶지 않으니 감사, 모진 세월 견딜 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감사.' 참 감사할일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적어 나갔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인데도 너무 감사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노트 한 권에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새 마음에 있던 원망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검사를 다시 했는데 아주머니의 암세포는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택만이 행복하게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등 나를 망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심장이 좋지 않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서 호흡기를 낀 채 생활하는 한 소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숨 한번 크게 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감을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발족식 일정잡기 9월 29일

9월 29일 한울신문 2호 첫 편집회의를 했다.

신문이 나온 기쁨도 잠시 다시 신문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모였다.

한 번 기사거리를 취재하고 기사를 써봤으니 조금은 쉬울 것이다. 그런데 회의부터 난관이다. 자신이 맡은 꼭지가 중요하기에 자기 말만 먼저 하려고 한다. 조정이 필요하다.

1호가 나오기 전 그만둔 기자가 2명이다. 배상지가 떠나 문화면을 정리할 기자와 사진부장도 없다. 그래서 1호 만들 때 사진기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안혜빈을 사진부장으로 임명했으며, 문화면은 문소희가 정리하기로 했다.

'맛집멋집'은 지난호엔 귀현이가 했으나 귀현인 건강꼭지도 맡고 있기에 은지와 귀현이 둘이 맡아보라고 했다. 2호 기사거리 찾기는 서로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여 다음 모임까지 정리해 오라고 했다.

발족식 일정에 대한 회의를 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일정이 달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원 참석할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다. 여러 의견 끝에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

일자는 10월 8일이나 9일 중 정하기로 했으며 확정되면 공지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한두 시간 빠지면서 행사에 참여해도 되는지 걱정을 했다. 공문을 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해 줬다. 그것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발족식 없이 신문이 창간되었다.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만들어낸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 될 것이니 나쁘지만은 않다.

독자칼럼 10월 6일

박예은 기자가 청탁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지난 1호 때 네컷만화 선이 너무 얇아 박영실 디자이너가 예은이 보고 만화를 그린 정예림 학생에게 몇 가지 고칠 점을 알려주라고 했다. 예은이가 내용을 전달하고 나니 정예림은 못 그리겠다며 뒤로 뺐나 보다. 어르고 달래서 이번 호까지만 책임지기로 했다며 울상이다. 시도 원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지면은 4면과 5면 두 면을 거의 차지하는데 지면을 반도 못 채울 양이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구른다.

예은이가 측은해서 제안을 하나 했다.

"예은아,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했지? 아버지께 원고 청탁 한번 해보면 어때?"

"네? 아버지요?"

"응, 목사님들은 대체로 글을 잘 쓰시는 편이거든. 너무 종교적 색채가 짙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때?"

"글쎄요, 아버지가 써주실까요?"

"딸이 부탁하는데 안 해주시겠니?"

"그럴까요? 그럼 주제는 뭘로 정해 주죠?"

"감사가 어때? 네컷만화, 포토에세이도 가을의 풍성함이 주는 감사잖아."

"그럼, 한번 부탁해 볼게요."

예은이의 아버지 박재한 씨는 분당영광교회 부목사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설교 준비로 인해 글쓰기 훈련이 되어 있다. 약간 서툴면 어떤가! 태평4동 주민이 쓴 글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지면이 남을지 몰라서 성남 신흥동에 거주하는 아동문학가 최명숙 씨에게 동화 한 편을 부탁해 놓았다. 박재한 씨 원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체하기 위해서 였다.

원고마감 하루 지나 박재한 씨의 글이 들어왔다. 내용과 문체가 따뜻하다.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칼럼난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았다. 최명숙 씨 동화로 인해 원고분량도 넘치고 있어 박재한 씨의 글은 독자칼럼 꼭지를 하나 만들어 1면에 실었다. 그렇게 해서 독자칼럼 꼭지가 생겼다. 예은이는 숙제를 척척 해내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단청슈퍼

인물탐방 기자들은 처음부터 유독 고생이 심했다. 취재 요청할 때마다 거절당하는 게 일이다. 2호도 인물탐방에 문제가 생겼다.

태평4동의 같은 자리에서 30년 넘게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단청슈퍼'의 주인아저씨를 회의에서 취재원으로 택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취재 요청을 하러 가보니 당사자가 취재를 거절했다. 그 아저씬 젊은 시절 단청을 칠하던 장인이었다. 30년 전의 시간 속에선 가게 앞 공터에서 '가마'나 '상여'에 단청을 칠하던 아저씨를 종종 보곤 했었다. 그래서 가게 이름이 '단청슈퍼'이다.
아저씨가 묻어둔 단청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의 글을 통해 읽고 싶은 마음 간절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에게의 취재 요청과 기사쓰기는 유명인사에 대한 취재 요청과 기사쓰기보다 힘들다. 우선은 자신이 기사화된다는 것이 요란한 행사 같은 느낌이 들기에 싫어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의식이 마음에 깔려 있어서 취재를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반 신문엔 자신을 홍보하고 싶은 사람, 특별한 일을 해냈다고 세인들이 인정한 사람, 아니면 범죄자가 실리는 것이다. 거기에 반해 한울신문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열심히 생활하는 평범한 소시민에게 초점을 맞췄으니 기사 쓰기가 쉽지만은 않다.

한울신문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편집의도를 그 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취재요청을 하고 싶다.

발족식 10월 9일

2007년 10월 9일 11시 '한울신문'과 영상뉴스 '한울뉴스'의 발족식을 했다.

진행은 김성수 한울신문 발행인이 맡았다. 발족식은 태평4동 통장협의회 회장인 '한울신문' 박건화 발행인의 첫인사로 시작했다. 박건화 발행인은 아이들이 취재 요청 시 거절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다. 이정환 태평4동 동장은 '한울'의 제호에 맞게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 최성은 시의원,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 금빛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등 20명이 넘는 동네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한울뉴스' 발족식을 축하했다.

그날 어린이기자단은 기자증을 받았다. 아이들은 신문에 실릴 기사를 쓰고 영상뉴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자였지만 공식적으로 기자임을 인정받은 날이었다. 또한 그날은 영상뉴스 1호 발표 날이기도 했다.

동네에서 문화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도시

지난 9일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어린이 기자단' '기자증'을 목에 걸고 사진기와 수첩, 캠코더를 손에 든 아이들로 왁자지껄 동네 이야기 마당이 펼쳐졌다. 성남문화재단이 2년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성남시 태평4동의 '꿈꾸는 아이들'이 준비한 태평4동 어린이 기자단 발족 및 한울뉴스 창립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고사리 손으로 제작한 동네신문에는 작년부터 동네주민들과 함께 작업한 '동네 미술관'을 탐방하면서 '그림 있는 동네 풍경'과 금빛초등학교에 그려진 벽화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가을운동회를 6mm 영사기에 직접 담은 '태평4동 어린이 뉴스'를 송채연(금빛초 5학년) 아나운서가 보도할 땐 어린이 기자단의 환호성으로 동사무소가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성남문화재단은 2005년 10월에 5대 정책사업의 하나로 성남의 45개 동네마다 마을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우고 문화공동체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1단계 3개년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45개 동네의 유형을 분석하여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 유형으로 나누고 3년 동안 5개의 시범동네를 선정하여 문화재단과 예술가가 직접 주민들과 만나 사례를 창출하고 그 과정을 '프로젝트 북'으로 상세히 엮어내고 있다.

2006년도엔 첫 번째 사례로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同樂太平)하세!'라는 제목으로 골목길 유형을 시도하고, 올해는 은행2동 주공아파트와 상대원1동 공단 작업이 현재 한창 진행중이다. '나눔이 즐거운 Art-pool'은 20년 전 아파트 내에 지어진 수영장을 주민들의 모임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수영장'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이다. 아트풀 홈페이지(www.art-pool.or.kr)는 풀장댄스, 씨네풀, 풀장놀짱, 풀장이 환상이야, 낄낄마녀의 동화읽기, 미디어 워크숍, 은행동 UCC 등 주민들의 예술놀이터로 분주하게 돌아간다.

성남문화재단은 5개 시범사례가 끝나는 2009년부터는 2단계 5개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45개 동네 워크숍을 준비할 계획이다. 동네마다 스스로 문화공동체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매뉴얼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배어 있는 동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가는 도시야말로 진정 '문화의 도시'라 할 만하다.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동네마다

스스로 문화공동체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매뉴얼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배어 있는 동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가는 도시야말로
진정 '문화의 도시'라 할 만하다.

'둔촌사당' 취재 날

발족식이 끝난 뒤 회식을 했다. 발족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도 같이 하는 자리였다. 회의시 간단한 다과만 했을 뿐 그동안 고생하는 기자들과 회식 한 번 못 했다. 마음 한 편이 자식 굶기는 어미처럼 조금씩 불편했는데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니 흐뭇하다.

지난 회의 때 발족식 끝난 후 명소탐방 취재 가기로 일정을 잡았다. 명소탐방은 기자 아이들만 가기에는 거리와 교통편의 문제가 있어 로드매니저 역할로 동행 취재를 해야 한다. 이번 호엔 '둔촌사당' 으로 정했기에 취재할 장소로 가기 전 자료를 받기 위해 성남문화원을 방문해야만 했다.
김은하, 안원모, 안혜빈 기자와 함께 한울신문 창간호를 들고 성남문화원 김정진 부장을 찾았다. 김정진 부장 역시 기자 아이들을 칭찬한다. 김정진 부장이 아이들에게 자료와 책을 선물로 줬다. 아이들은 감사히 받고 '둔촌사당' 으로 향했다.

'둔촌사당' 관리자는 김정진 부장에게 미리 연락을 받아서인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 쾌청한 날씨였다. 방문자는 우리 밖에 없다. 아이들이 취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혜빈이의 촬영 각도를 참견하며 취재가 얼추 마무리되어 갈 즈음 주머니 속 전화가 진동을 한다.
집에서 작은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이다. 은하에게 마무리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기자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다친 아이가 걱정이다. 여기서 바로 출발해도 평택 집까진 1시간 30분이 걸린다. 태평4동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향하면 30분 이상 지연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택시 타고 갈 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한다. 혜빈이에게 만 원을 쥐어주고 택시를 세운 후 세 아이를 태워 보냈다.
다급하게 운전을 하며 가는 동안 집에 있는 작은아이, 택시 타고 태평동에 가는 세 아이 모두 걱정이다. 도착했을 시간이 됐을 즈음 혜빈이에게 전화해 보니 잘 도착해서 남은 돈으로 닭꼬치 사먹고 있다고 한다.

신문을 구겨놨어요 10월 27일

10월 27일, 아이들이 고생한 보람으로 한울신문 2호가 발행되었다. 금빛초등학교 4-6반 교실에 모여 2호 평가회를 갖는데 공사중이어서 너무 시끄러웠다. 소음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하여 아이들에게 30부씩 먼저 배부한 후 밖에서 평가회를 하기로 했다.

벤치에 앉아서 회의를 하려 하니 마주볼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자리를 옮겨 종이를 깔고 바닥에 앉아 회의를 했다. 기사원고가 늦어져 제대로 교정을 보지 못하는 것, 기사제목 달기와 리드글이 약하다는 것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신문을 줘야 할 취재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귀현, 은하, 혜빈, 선화만을 차에 태우고 다른 아이들과는 다음 모임 때 보기로 했다.

'요술가위' 앞에 귀현이를 내려주고, '참사랑의 집' 앞에 선화를 내려 주고, 성남문화원과 '둔촌사당'을 방문한 후 돌아오는 길에 한울신문도 알릴 겸 은하, 혜빈과 무심정사를 방문했다. 그때 지혜한테 전화가 왔다. 깜빡 잊고 받은 신문을 벤치에 놓고 왔는데 찾으러 가보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온 바닥에 헤쳐 놓고 구기고 찢어 놨다고 한다. 쓸 만한 신문을 한 장씩 챙기는데 분이 삭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구기고 찢어 놓냐고 나한테 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에 숨어 있는 많은 이들의 땀과 피와 열정을 모른다. 너무나도 흔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인쇄 매체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니 한울신문 기자단 아이들은 알고 있다. 몇 장 안 되는 종이 속에 계산하기 어려운 수고가 있다는 것을…….

한울신문 3호

생활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장건 회장을 만나다

조선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 | 솔솔 풍기는 향기를 따라~

날마다 청소하는 할아버지

몸을 태워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리코더 선율 속으로 | 문화 예술인들의 모임 사랑방 문화클럽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 산불조심 | 4,5학년 수련회

아토피성 피부염 |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2기 새내기 기자들과 한잎이와 한별이

기자이기에 누리는 특별한 혜택 | 3호 발간

우리동네 사람 | **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장 장건**

생활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장건 회장을 만나다

이번호에는 성남의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장건(56세) 회장을 만나보았다.

우리가 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묻자 장건 회장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생활협동조합이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생활에 서로 도움을 주는 생활공동체이죠. 혼자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가능해요. 요즘은 직거래와 의료시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도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살 수 있어서 좋고, 농부는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으니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유익하기도 하다.

요즘은 의료시설도 꼭 필요한 시점이다. 또 아름다운 마을, 생태적인 마을을 만드는 일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마을의 환경을 좋게 이끌어가는 일이다.

장건 회장은 생협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가난 때문에 소외당하고 고통 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즈음은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라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을 말씀하셨다. 지구온난화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인데,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집에서도 내복을 입는 게 좋다고 하셨다.

장건 회장은 우리 마을과 주민에게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장건 회장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도 돌아보고요. 또 어린이들은 나무나 꽃을 꺾지 말아 주세요. 꽃과 나무도 우리와 같은 생물이니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무와 꽃이 있어 우리 마을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과 나무를 아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우리 마을의 여러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장건 회장을 비롯하여 생활협동조합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이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한다. 장건 회장처럼 우리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절로 감사하게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태평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전은지, 오시영, 문소희, 안혜빈 기자 (금빛초 5)

조선후기 여류문사(女流文士)

강정일당(姜靜一堂)

모란 시흥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세종연구소를 지나 금토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표지판을 따라 가면 강정일당 사당이 나온다.

사당이 산속에 있어서인지 들려오는 소리는 새소리와 물소리뿐 아주 조용했다. 사당에는 감나무와 은행나무 밤나무 등 키 큰 나무가 많았다. 또 앉아서 쉬어 갈 수 있는 의자와 커다란 돌도 많이 있어서 가족끼리 나들이하기에도 좋아 보였다.

강정일당 사당은 1989년 10월 파평 윤씨 종친회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조성하였으나 퇴락하여 성남시에서 정일당 강씨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파평 윤씨 문중의 협조를 받아 1998년 7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재조성했다.

사당 뒤쪽에 정일당 묘소로 가는 길이 있다. 길에는 낙엽이 무수히 떨어져 있었다. 주변에 있는 밤나무에서 밤송이가 떨어져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정일당 묘소로 가는 길은 갈림길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이때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쭉 올라가면 된다.

정일당 강씨는 1772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20세에 6살 연하의 윤광연과 혼인하여 가난한 형편에서도 시부모님을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으며, 시어머니 지일당 전씨와 시문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고부 사이였다. 정일당 강씨는 시문, 서화에 능하고 성리학과 경술에 밝은 여류문사였으며 도가풍의 시 40여 편을 『정일당유고』에 전하고 있다.

여기서 '여류문사' 의 뜻을 알아보자. '여류' 란 전문적인 일에 능숙한 여인을 말한다. 그리고 '문사' 는 문학에 뛰어나고 시문을 잘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류문사' 란 문학에 뛰어나고 시문을 짓는 일에 능숙한 여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일당 강씨를 여류문사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문학과 시문에 뛰어났음을 알려 준다.

강정일당의 사후 4년이 지난 1836년에 그녀의 남편 윤광연은 총 147쪽 분량의 아내의 유고문집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를 간행하였다. 유고집은 순 한문으로 표기돼 있으며 뒷부분은 정일당을 칭송하는 글들이 있다. 『정일당유고』에 총 38편의 한시가 실려 있다. 학문 수양, 찬양, 송축, 훈계를 담은 선비 정신의 시로서, 심신수련과 인격도야를 높은 경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중 한 편을 살펴보면 " '탄원 삼장을 짓고' 숲속에 살며시 계곡 물을 마시고, 책을 껴안고 스스로 좋아한다. 이전의 닦음이 마음에 있어, 오묘한 경지를 넘겨다 볼 만하다. 의문은 많으나 서적이 없으니, 누구를 좇아가 물어볼꼬? 이 중용과 정도를 실천하면서 그 도를 넓혀 평탄히 하리라 (하략)"이다. 이 시에는 학문에 대한 정일당 강씨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에는 강정일당보다 신사임당이 더 유명하다. 어찌하여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두 여성 학자인데 강정일당보다 신사임당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까? 그 이유는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가 나라의 존경을 받는 뛰어난 학자로 자라 '훌륭한 학자의 어머니' 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강정일당의 자식들은 모두 단명하여 양자를 들였다고 하니 강정일당과 그녀의 자식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신사임당보다 강정일당을 더 훌륭한 여성학자로 보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훌륭한 여류문사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강정일당. 우리 성남의 역사적 인물인 강정일당을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뛰어난 여류문사' 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은하 기자 (금빛초 5)

맛집 멋집 | 블랑쉬노엘 과자점

솔솔 풍기는 향기를 따라~

금빛초등학교에서 충혼탑쪽으로 가다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번쯤 돌아볼 만큼 맛있는 향기가 난다. 그 향기를 따라가 보니 블랑쉬노엘 빵집이다.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아주머니가 우리를 환영해 준다. 이 빵집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빵 만드는 일은 주인아저씨가 하고 빵을 봉지에 넣고, 계산하는 일은 주인아주머니가 맡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케이크와 빵이 너무 맛있게 보여 자꾸만 그쪽으로 눈길이 가는 걸 어쩔 수 없다.

빵집 이름인 '블랑쉬노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다. 그에 걸맞게 빵집 안은 꼬마 전구와 여러 소품들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또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작은 분수대와 식물들, 그리고 천장을 아름답게 빛내는 조명들. 이 모든 인테리어를 주인아저씨가 직접 했다고 하니 솜씨가 대단하다.

눈에 돋보이는 점은 인테리어만이 아니다. '블랑쉬노엘'의 케이크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다. 생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모카 케이크, 딸기 케이크 등 손님들의 다른 입맛을 고려한 듯 다양한 케이크가 있었다.

또 빵 종류도 많았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은 빵은 '누룽지 파이'와 '바나나 카스테라'다. '누룽지 파이'는 말 그대로 누룽지 모양처럼 울퉁불퉁한 파이인데, 설탕을 솔솔 뿌려 누룽지보다 달콤하다. '바나나 카스테라'는 바나나 모양의 노란색 카스테라. 이것들을 보고 있으니 침이 꼴깍 넘어간다.

'블랑쉬노엘'은 매일매일 빵을 굽는다. 자주 새로운 빵을 선보이며 고객에게 새로운 맛을 선물한다. 주인아주머니께 물어보니 손님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예쁜 인테리어와 맛있는 빵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도 새롭고 맛있는 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전은지, 김은하, 안혜빈 기자(금빛초 5)

아름다운 봉사 | 정형주

날마다 청소하는 할아버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에서 아름답고, 정성어린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정형주(79세) 할아버지다. 정형주 할아버지는 태평4동 거리를 열심히 청소하는 봉사자이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청소하는 것을 좋아해 지금까지도 집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정형주 할아버지는 50여 년 전에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이 학교 올 때,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갈 때 깨끗한 길에서 웃으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청소하기 시작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눈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청소를 한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형주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한다.

정형주 할아버지는 신장과 위와 눈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갈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더러운 거리의 청소를 더 하라고 하시는지 살려 주셨다.

정형주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청소 봉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청소 봉사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전지혜, 이지원 기자 (금빛초 5)

우리들의 이야기

몸을 태워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신동아 아파트 뒤쪽 한 건물의 2층 작은사랑 성남지역 아동센터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곳을 윤장숙(태평4동 거주) 씨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처음 혼자 시작해서 구청과 시청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여러 선생님들의 봉사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부모님이 맞벌이어서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에게 밥과 간식을 주고 공부와 피아노 등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약 30명 정도의 아이들로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집을 소개받아서나, 또 개인의 신청으로 모였다.

윤장숙 씨는 어릴 때에 한 만화책에서 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나가는 수녀님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교육 및 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몸을 태워 빛을 발하는 촛불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전했다. 또, 선생님들이 월급을 조금 받는 게 안타까운데 봉사를 하면서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윤장숙 씨는 살아 있는 동안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학년 별로 층을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맺었다.

박예은 기자 (금빛초 6)

동아리탐방 |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제8회 정기연주회

리코더 선율 속으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뭔가 남다른 게 있다. 그 한 예가 '경기교사 리코더 합주단'이다. 이 동아리는 주로 성남, 용인, 광주, 수원 지역에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다.

처음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뜻이 맞는 교사들이 모여 리코더 음악을 배우고 연습했는데, 연습하면 할수록 리코더 선율이 아름다워 꾸준히 모이게 되었다.

동아리 회원들에겐 연주회를 통해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 많은 사람들이 리코더를 별볼일 없는 악기처럼 생각하는데 연주회를 통해 리코더의 아름다운 선율과 가치를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회원인 배상열 씨는 좀더 수준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 학생들이 아름다운 리코더 음악을 연주하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동아리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에 모여 연습을 한다고 한다. 그 덕분에 바로크, 현대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며 현재는 5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한다. 지금까지 거쳐간 회원이 300명 정도 된다.

오는 11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8회 정기 연주회(무료공연)를 한다.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리코더의 선율에 젖어보기 바란다.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제8회 정기연주회

일시 2007. 11. 30 오후 7시 30분 /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11-9921-9424 /
주관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 후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청, 성남사랑방 문화클럽

문소희 기자 (금빛초 5)

문화 예술인들의 모임

사랑방 문화클럽

'사랑방 문화클럽' 프로젝트는 문화, 예술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나 동아리를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지금 성남시에는 1,103개의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클럽들이 모일 장소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

이 클럽들이 모이는 곳을 '사랑방'이라고 한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사랑방을 150개 정도로 만들 예정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랑방 문화클럽'에서의 '사랑방'은 우리 한옥의 사랑방을 말한다. 예전에 사랑방은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놀고 쉬었다 가던 장소였다. 이처럼 클럽들은 사랑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자기 의견을 내놓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사랑방 문화클럽'은 문화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다. 클럽들이 문화재단에서 장소를 제공받았을 때 문화통장에는 5,000이라고 적힌다. 반면에 클럽이 공연을 하면 +100,000이 더해진다. 이렇게 문화클럽은 계속 클럽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0월 11-14일까지 문화클럽들이 모여 사랑방클럽축제를 열었다. 축제에는 6,2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

서선화 기자 (금빛초 6)

만들어 봐요

크리스마스 CARD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며 친구, 연인 등에게 내가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입체카드 만들기

준비물 _ 털실, 부직포, 색지, 송곳

만드는 방법 1.색지를 14-16cm로 잘라 반으로 접은 다음 안쪽 접힌 선 양쪽으로 구멍을 하나씩 낸다.

2.빨간색 부직포를 하트 모양으로 자른 다음 털실을 끼워 카드 안쪽에 만들어 둔 구멍을 이용해 달아 준다.

3.카드 안에 장식 글자를 쓰고 테두리를 장식해서 마무리.

문자카드 만들기

시중에 나와 있는 입체 카드를 응용해서 만드는 문자카드. 둥글게 오려낸 색지 아래 'Merry Christmas'가 선명하게 보인다.

준비물 _ 물감, 붓, 리본, 양면 테이프

만드는 방법 1.노란 색지를 카드 크기로 자른다.

2.앞면이 될 부분의 중앙을 타원모양으로 자른다.

3.흰 도화지에 글자를 쓴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4.레터링한 종이를 타원형 밑에 놓고 양면 테이프로 붙인다. 앞면 타원모양 위에 리본을 묶어 붙인다.

*레터링 | 디자인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시각화를 위해 문자를 그리는 것 또는 그려진 문자를 말한다.

전지혜, 오한홍 기자 (금빛초 6)

환경 Story

산불 조심

산불이란 산림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말한다. 산불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자주 일어난다.

산불의 원인

자연적인 이유에 의한 산불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산불재해의 80%는 사람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봄철이나, 겨울철에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3-5월과 11월을 산불 경방 기간으로 정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를 철저히 하고 있다.

산불 예방법

1. 산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 산불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이다. 작은 불씨라고 번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바람에 불씨가 번지고, 건조한 날에는 더욱 산림이 타기 쉬우므로, 산에 오른다면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고, 절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2. 산에서 음식을 구워먹지 말자. 건조한 날씨에 음식을 구워먹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밖에도 산불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일부터 실천하여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나 산림관서, 경찰서 등으로 연락해야 한다. 그리고 산불은 바람을 따라 움직이므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여 대피한다. 만약,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주위의 연료가 적은 물질을 골라 얼굴과 입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2006년 우리나라 산불 발생 피해현황

발생건수 405건

피해면적 2540000m제곱

피해금액 4억3275만5000원

사망 4명 부상 1명

이렇게 무서운 산불, 남의 나라, 남의 일만은 아니다. 특히 날씨가 건조한 요즘, 우리 주위까지 번질지 모르니 더욱 산불을 주의해야 한다.

오시영 기자 (금빛초 5)

학교 소식

4, 5학년 수련회

금빛초등학교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5학년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4학년이 가평수련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수련원에 도착해 보니 수련장 선생님들이 환영 인사를 했다. 수련회 첫날은 모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 첫날 밤엔 장기자랑을 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오래 전부터 연습했는지 모두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다.

수련회 둘째날에는 할 일이 가장 많았다. 미꾸라지 잡이, 단심 줄놀이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했고, 밤에는 즐거운 캠프파이어로 멋있는 밤을 즐겼다.

셋째날은 사물놀이와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2박 3일 동안 취침시간에 모두 편히 자지는 못했다. 떠들면 안 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한 마디도 하면 안 되고 정한 시간에 바로 자야 했기 때문이다.

수련회를 갔던 몇 명의 학생에게 수련회가 어떠했는지 물어보았다. 몇 명은 수련회가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쉬는 시간은 별로 없어서였다.

그러나 금빛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수련회에 다녀 온 것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한다. 부모님께 잘하고 여러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법을 배우고 왔기 때문이다. 수련회 선생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6학년 때까지 친절하고 성실한 학생이 되라고 부탁했다.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아토피성 피부염

원인 가계적 또는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소인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오염, 진드기, 곰팡이균 등이 있다.

유전적인 요인은 가족력으로 보는 견해를 말하고, 환경오염은 공기나 물이 오염되고 토양이나 음식에 대한 오염이 심해지면서 여기에 노출된 인체에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이 증가하여 세포의 노화나 비정상적인 반응이 유발되어 아토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진드기는 우리나라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주로 침구류같이 두꺼운 섬유 속에 있다. 곰팡이균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호흡기로 흡입했을 경우 진드기와 마찬가지로 아토피와 비염, 천식의 원인이 된다.

아토피성 피부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으므로,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유발 인자를 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조절해 나가야 한다.

치료법 약물요법과 일반요법이 있다. 먼저 약물요법에는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는 방법이 있다. 스테로이드제는 크게 소염작용과 면역억제작용이 있으며 효과가 우수하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바르면 바른 부위의 피부에 털이 나고 피부가 위축될 수 있으며 피부색소가 적어지고 세균이 감염될 수 있다. 또 여드름이 돋고 피부가 얇아져 실핏줄이 드러나 흉해질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에 의한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호르몬 농도가 아주 적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단기간에 꼭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 적은 양을 자주 발라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요법.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낸 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전문의를 찾아가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원인을 모른 채 가려움증 치료만 계속할 때는 가려움-긁음-더 가려움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예방법 활성산소나 과산화지질의 형성을 돕는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합성조미료나 인공감미료가 많이 가미된 음식들이다. 이러한 음식 대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연식을 하는 것이 아토피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속이 불편하면 피부 또한 나빠지므로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음식 피할 음식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주의해야 할 음식은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고기류, 라면, 햄버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버터,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은 음식은 각종 유기농 채소, 과일 등이 좋으며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우유나 산양유, 두유 등의 대체우유를 먹는 것이 좋다. 간혹 두유(장기보관제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박재한 (태평4동 거주, 분당영광교회 부목사)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자인 형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동차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폴이 일을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더니 개구쟁이 소년 하나가 폴의 새 차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폴이 다가서자 소년은 부러운 눈으로 차를 바라보면서 폴에게 물었다.

"아저씨가 이 차의 주인이세요?"

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내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것이지."

"형이 이 차를 사줘서 아저씨는 돈 한 푼 내지 않고서 이 멋진 차를 얻었단 말인가요?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소년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당연히 폴은 소년이 멋진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년의 그 다음 말은 폴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은 놀라서 소년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무심결에 소년에게 말했다.

"너 이 차 타보고 싶지? 태워줄까?"

소년은 기뻐서 소리쳤다.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폴은 소년을 차에 태우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런데 소년이 문득 폴을 돌아보면서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아저씨 미안하지만 저희 집 앞까지 좀 태워다주실 수 있으세요?"

폴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멋진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자신의 모습을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폴의 생각은 또 다시 빗나가고 말았다.

집에 도착한 소년은 폴에게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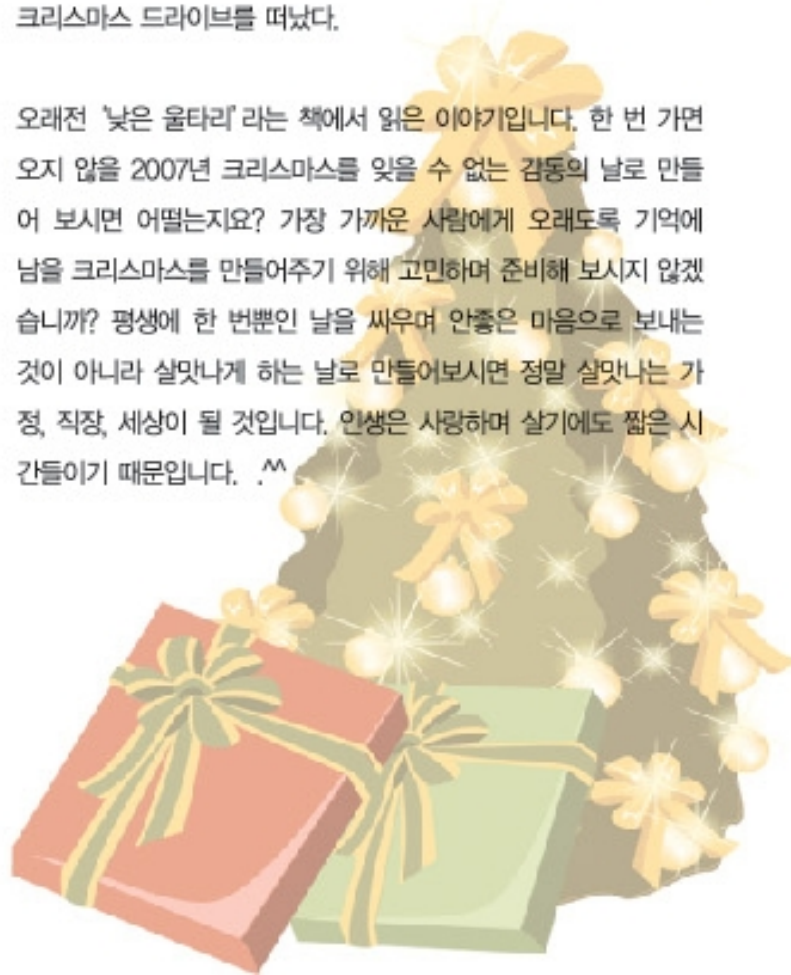
"저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소년은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소년이 집 밖으로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다. 소년은 두 다리가 불구인 어린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소년은 동생을 층계에 앉히고 어깨를 껴안으면서 폴의 자동차를 가리켰다.

"버디, 내가 말한 게 저 차야. 저 아저씨의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거래. 버디, 나도 언젠가 너에게 저런 차를 선물할 거야. 넌 그 차를 타고 가서 내가 너한테 열심히 설명해 준 세상의 멋진 것들을 구경할 수 있을 거야."

폴은 차에서 내려 층계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불구인 소년을 번쩍 안아 차의 앞좌석에 앉혔다. 중증 장애인 소년의 형도 눈을 반짝이며 그 차에 올라탔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 드라이브를 떠났다.

오래전 '낯은 울타리'라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을 2007년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날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는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민하며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을 씨우며 안좋은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맛나게 하는 날로 만들어보시면 정말 살맛나는 가정, 직장,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



2기 새내기 기자들과 한잎이와 한별이

지난 2호를 만들 때 안원모가 그만두었다. 명소탐방 기사 원고를 올린 뒤 신랄한 평가(?)를 받은 직후 학원 일정이 너무 바쁘다며 취재 다니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 시작한 12명의 기자 중 3명이 한울신문을 떠나 독자가 되었다. 남은 기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부담을 같이 나눌 기자가 필요하여 2호가 발간되기 전 한울신문 2기 새내기 기자를 모집했다. 한울신문 창간호를 읽어 본 금빛초등학교 학생들 중 신문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다. 그들 중 기존 기자들의 추천을 받아 오한홍, 김승민, 이지원, 임채영, 조은샘. 다섯 명이 새롭게 합류하였다.

그들은 3호 편집회의부터 참여하였다. 기자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며, 기사거리 찾기와 취재원 선택, 취재하는 방법을 동행취재의 방법으로 조금씩 배워나갔다.

11월 6일 3호 2차 편집회의에서 네컷만화를 청탁할 작가 부재로 인한 대책 토론으로 시끄러웠다. 공모를 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원고 마감까지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예은이가 다른 기자들에게 주변에 만화 그릴 만한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았으나 모두 고개를 저을 뿐 대답이 없다.

그때 은하가 기자들 중 네컷만화를 그려 그중 제일 괜찮은 것을 채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자기가 맡은 꼭지를 취재하고 기사 쓰기에 바쁜 아이들인데 호응이 좋을 리 없다. 그러자 은하가 그림을 쓱쓱 그린다. 단순한 나뭇잎과 별 캐릭터였다.

"우리 신문이 '한울'이잖아요. '한울'은 큰나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캐릭터로 하고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봤어요. 어때요?"

기자들은 은하의 깨끗한 그림 솜씨를 보고 만장일치로 은하보고 네컷만화를 담당하라고 했다. 은하는 해보겠다고 승낙한 후 캐릭터에 '한잎이와 한별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렇게 '한잎이와 한별이'가 한울신문에서 태어났다.

한잎이와 한별이 | 김은하(금빛초등학교 5학년)

기자이기에 누리는 특별한 혜택

11월 7일 민예총 김수란 사무국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로기나래의 퓨전인형극 '백조의 호수' 취재요청과 관람에 대한 안건이었다. 한울신문이 월간이다 보니 기사는 미리 나갈 수 없어서 관람 후 기사로 3호 문화면에 싣기로 했다.

기자들 중 누구는 보여 주고 누구는 안 보여 줄 수가 없어 구할 수 있는 초대권을 물어보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준다고 한다. 기분 좋은 일이다. 아이들이 기자이기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다.

부편집장 은지에게 전화해서 11월 9일 금요일 '백조의 호수'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을 체크 하라고 했다. 아이들 중 여섯 명이 갈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 민예총 김수란 사무국장 덕분에 9일 시민회관에서 아이들과 특별모임을 갖고 좋은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었다. '백조의 호수' 기사는 전은지가 썼다.

3호 발간

한울신문 3호가 11월 27일 늦은 저녁에 발행되었다. 시간이 늦어져서 28일에 아이들과 모임을 가졌다.

3호를 만들 때 문소희와 서선화가 전화 인터뷰를 해 봤다. 그 전까지는 직접 취재원을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것이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 수 없다. 둘 다 직접 취재를 해본 적이 있으면서도 전화 취재를 하려고 하니 방법을 모르겠나보다. 전화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 내게 물었다. 각자 맡은 꼭지가 달랐지만 각자의 취재원에게 서너 번씩 전화를 했을 것이다. 전화 인터뷰 후 아이들이 올린 기사 원고를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취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때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어눌한 아이들의 취재에 성실히 답변해 준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과 경기교사리코더 문화클럽의 배상열 클럽지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이들과 3호 평가회를 가진 후 아이들에게 각각 30부씩 배부를 했다. 기자 인원이 14명으로 늘어 아이들에게 배부된 것이 420부다. 그래서 취재원에게 갈 300부를 180부로 줄였다.

좋은생각

한울신문 4호

전통 차와 예절을 가르치는 다도인 한경희 씨를 만나다

솔솔 불어오는 책의 향기, 책 테마 파크(Book Theme Park)

우리마을 맛있는 과일을 책임지는 '우리 농산물'

봉사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 새로운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야! 방학이다 | 뜨개질 하는 방법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 서해안의 슬픔, 원유유출

2007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 겨울철 감기 | 알쏭달쏭 퍼즐여행

4호 편집회의 | 4호 교정 보던 날

학부모 간담회 | '꿈꾸는 아이들'

전통 차와 예절을 가르치는

다도인 한경희 씨를 만나다

다도인 한경희(43) 씨는 지역사회 협의회에서 일하며 성남시의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통차와 예절을 가르친다. 그녀의 우리문화와 차에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껴보자.

그녀는 다도인답게 그녀의 집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다소곳이 차를 따르는 모습이 아름답다.

먼저 차에 대해 물었다. "신라시대 김대겸이 우리나라에 차씨를 가져와 마시게 되었습니다. 차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지금은 금방 끓여서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차 잎을 직접 따서 천천히 달여서 마셨으니 차를 마시면서 기다림을 배우게 된 것이죠." 더불어 "이 찻잔은 백자예요.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찻잔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꽃은 찻자리를 장식해주는데, 자연에 있는 것을 집안으로 들여와 작은 자연으로 표현합니다."라고 했다.

한경희 씨는 2002년부터 재미로 다도를 시작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예절 선생님을 보며 자신도 멋지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주로 초등학생에게 다도를 가르치다 보니 목이 많이 아프지만,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아픈 것도 잊을 정도입니다."

한경희 씨에게 좋은 차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연꽃잎을 따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꺼내어 녹차를 부어 마시면 은은하게 연꽃 향이 나는 연차를 추천해 주었다. 또 영국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맛있는 차를 수입해 왔는데 배를 타고 가져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 누렇게 변한 차가 지금의 홍차이다. 홍차와 우유를 섞어 마시는 인도식 홍차도 정말 맛있다고 했다. 그리고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든 보이차. 보이차는 특히 속이 찬 성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했다.

또한 차는 옛날부터 이어져온 우리나라 전통문화인데, 사람들이 점점 잊기 시작한 후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등의 차가 더 유명해졌다며 아쉬워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우리나라 사람조차 차가 우리나라 문화였다는 것을 잊어버려 정말 속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녀는 "다도인들은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마시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차를 우려서 대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다도를 즐기며 아이들에게 전통차와 전통예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고 말을 맺었다.

한경희 씨처럼 우리 문화와 차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우리도 새로운 것만 좇지 말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앞으로 한경희 씨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 본다.

오시영, 전은지, 안혜빈 기자 (금빛초 5)

솔솔 불어오는 책의 향기,

책테마파크

책 읽기 좋을 때는 언제일까? 독서의 계절 가을일까? 여가 시간이 많은 주말일까? 답은 바로 '책 테마 파크를 찾아 왔을 때' 이다.

책테마파크(Book Theme Park)는 율동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책테마파크는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족놀이테마 공원이다. 이곳은 지난 2006년 4월 22일에 개관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책 관련 테마 파크이다. 이곳은 시민들이 즐길 공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책을 보는 것 외에도 전시, 체험 등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책테마파크는 총 8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공간은 '바람의 책, 소리' 로 책을 지칭하는 각 나라의 언어들이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채 대나무 숲과 한데 어우러져 성스러운 말씀의 현장을 재현하고 있다. 가끔 바람에 의해 각 글자들이 움직이거나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기도 한다.

두 번째 공간은 '한글의 책'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훈민정음의 판본과 필사본을 이용하여 한글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 공간은 '시간의 책, 미로' 이다. 이곳은 구불구불한 미로로 형성되어 있는데 책의 역사가 그려진 벽이 이어져 있다. 벽화는 '책의 역사' 를 13개장으로,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그러나 상상력 풍부하게, 역동적인 '추상=구상' 으로 변주한다. 이곳의 벽화를 보고 있으면 '책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네 번째 공간은 '공간의 책, 광장' 이다. 이곳은 실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장르별 작품을 독서 관람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청각실과 신간서적을 전시하고 대여하는 전시실, 자료실을 구축한다. 구연동화 등의 각종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 되어있다. 조명은 지상의 미로 형상대로의 자연 채광이 되며, 지하의 연결 통로를 통해 야외공연장 '하늘의 책' 과 이어진다.

다섯 번째 공간의 이름은 '하늘의 책' 으로 야외공연장이다. 이곳은 바닥에 사색의 장과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담겨져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에 그린 우리별지도' 라는 뜻이다. 어두워지면 푸른빛의 LED조명에 의해 중요한 별자리에 불이 켜진다.

여섯 번째 공간은 '물의 책, 만파식적' . 만파식적은 신라시대 전설 속의 피리이다. 여섯 번째 공간은 하늘과 사람, 바람, 나무가 투영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만파식적이다. 자연 목초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닌 곳이 길이 된다. 또 중심부에는 책 모양의 연못이 있어서 책을 읽는 것과 자연이 어우러진다.

일곱 번째 공간은 '음악의 책, 선율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자연과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렇게 음악이 묻어나는 '글=조각' 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공간은 '신8언시 천자문 책' 이다. 이것은 벤치조형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한자 천자를 골라 8자 시문으로 구성한 시적 표현을 돌에 새긴 것이다. 125개의 벤치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언어 이전의 시' 와 '언어 이후의 시' 들이 있다.

책테마파크에서 '공간의 책, 광장' 에서 책을 읽다가 야외로 책을 가지고 나가고 싶을 땐 신분증을 제시하고 책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월요일은 쉰다. 이곳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sncf.or.kr)를 참고하거나, 031-708-3588, 031-708-9088, 031-708-3688로 전화하면 된다.

책테마파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가족끼리 방문해서 다양한 행사도 즐기고 사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테마파크.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과 손을 잡고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

김은하 기자 (금빛초 5)

맛집 멋집 | 우리농산물

우리마을 맛있는 과일을 책임지는

‘우리 농산물’

우리 동네에서 과일이 맛있다고 소문난 ‘우리농산물(2368번지)’은 남편 천영태(45세) 씨와 아내 금창란(44세) 씨가 운영한다.

5년째 과일만을 파는 주인아저씨는 “과일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일 외 다른 것을 팔다 보면 좋은 과일을 팔지 못할까봐 과일만 팔고 있어요. 우리 가게의 특색은 과일의 맛과 신선도입니다. 저희가 파는 과일은 조금 비싸요. 손님들에게 좋은 과일을 드리려고 하니 그만큼 비싸고 양이 적어요. 저는 맛이 조금 떨어지는 과일을 싸게 많이 파는 대신, 좋은 과일을 조금 비싸게 팔고 있지요”라고 했다.

주인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니, 맛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맛이 좋은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물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과일을 보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가 보여요. 잘 판단이 안 되는 과일은 직접 먹어보고 사요. 요즘 제철인 부사는 국내 유일의 저장사과인데 색이 붉고 연하게 노란빛이 나고 큰 것이 좋아요.”

다시 과일을 팔면서 보람과 힘든 점을 물었더니 “저희 과일을 드시고 맛있어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손님들에게 좋은 과일을 팔아서 뿌듯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가락동시장에서 과일을 사와야 하고, 휴일이 없으니까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아쉽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바빠서, 아이들에게 명절에 대해 알려 주지 못하고 함께 보내지 못해 아쉽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수고를 알지 못해도,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좋은 과일을 사오는 주인아저씨,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과일이 더 맛있는 것은 아닐까? 취재를 끝내고 집에 가서 먹으라며 과일 몇 개를 챙겨주시는 아저씨에게서 훈훈한 마음이 전해진다.

전은지, 이지원 기자 (금빛초 5)

아름다운 봉사 | 허경애

봉사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신동아 아파트 뒤쪽 한 건물의 2층에 있는 작은사랑 성남지역 아동센터. 그 곳 주방엔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 해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식당봉사자 허경애(45세) 씨가 있다.

허경애 씨가 식당봉사를 하게된 계기가 재미있다. 허경애 씨는 작년에 혼자 상상을 해보았다. 자신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아이들이 호호 불며 맛있게 먹는 기분 좋은 상상이었다. 그 후로 작은사랑 성남지역아동센터에서 식당봉사를 하게 되었다.

허경애 씨는 자신이 차려준 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 예쁘고 고맙다.

허경애 씨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봉사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싶어 한다.

허경애 씨는 ‘봉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소문이 나있을 정도로 봉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허경애 씨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다.

전지혜 기자, 사진 이지원 기자 (금빛초 5)

새로운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여행 꾸러미 박순정(31세) 대표는 우리를 반겨주었다.

여행 꾸러미는 다양한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동아리로, 보고 느끼고 배우는 체험기행을 한다.

여행꾸러미는 우리 신화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역사기행, 환경의 소중함을 찾아 떠나는 생태기행, 가까운 서울, 경기 지역의 도심여행, 영화나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문화예술기행, '옛길따라 걷기'와 같이 주제를 정해 떠나는 테마기행이 있다.

박순정 선생이 여행꾸러미를 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문화와 농사, 갯벌체험 등을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였다.

회원들이 많다보니 가끔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다같이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안타깝다. 하지만 여행꾸러미를 하면서 사람들이 농사와 환경, 우리 문화 등을 알아가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 또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이지원, 오한홍, 기자(금빛초 5)**

■학교 소식

야! 방학이다

신나는 겨울방학을 시작했다.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거리가 머릿 속에 가득할 것이다.

정신 없이 노느라고 방학숙제를 개학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부터 시간계획표를 잘 짜서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하면 숙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기와 독서록은 필수 과제니까 꾸준히 해야 한다. 일기는 그날그날 밀리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록은 1주일에 한 편만 써도 방학숙제가 된다.

컴퓨터 타자연습이나 영어 공부하기 등은 짬짬이 하면 된다. 새 학기를 대비해 예습을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심부름과 청소, 설거지, 안마 등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면 더욱 보람 있는 방학이 될 것이다.

모두 알찬 방학을 보내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뜨개질하는 방법

추운 겨울이 되었네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따뜻함 하면 니트가 아닐까요?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니트웨어를 처음 짠 것은 14세기경 북유럽 여러 항구 지역의 여인들이었어요.

어부들이 사용하던 어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방한용의 니트 스웨터는 북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을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어부들의 작업복으로 좋았어요.

추운 겨울에 직접 뜨개질을 해서 친구나 부모님께 선물하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방법을 배워 봐요.

코잡기

1. 실을 두 겹으로 하여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집어넣는다.
2. 왼손을 위로 세우고 실자락은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잡는다.
3. 엄지 쪽에 바늘을 넣고 검지 쪽 실을 감아 실을 빼내 코를 만든다.
4. 다시 엄지 쪽 실을 감는다.
5. 검지 쪽 실을 바늘에 감아 빼내 2코를 만든다.

겉뜨기

1.오른쪽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는다.

2.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은 뒤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짤러 넣어 뺀다.

안뜨기

1.실을 앞으로 놓고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는다.

2.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 뺀다.

전지혜, 오한홍 기자 (금빛초 5)

한잎이와 한별이 | 김은하 (금빛초 5)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성남시청 근처의 주민교회 지하에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이 있다. 이 곳 말고도 10개 정도의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있다.

10여 곳의 총책임 및 관리자는 김해성 목사다. 김 목사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인권이 보장되는 지구촌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설립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을 소개하는 책 표지에 " '차별 없는 세상' 우리의 꿈입니다. 이주 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것,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라고 쓰인 글귀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한국 땅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국제결혼, 배우자들과 그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단일 민족을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은 사회복지 기금을 후원 받고, 연말이면 여러 사람들이 보내는 음식으로 생활을 한다. 또 사랑의 열매 기금을 받아 쓴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걸어온 길을 잠시 살펴보자. 1986년 5월에 노동 상담소를 설립(희망의 전화)하여 한국인 노동자 상담을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이 창립되었다. 그 뒤로 일요일 무료진료 개설, 한글학교 개강, 서울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집 개설,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 나눔' 설립인가, 세계 선교신학대학을 설립하며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박관삼 목사는 잠시 교회에 들렀다가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섬기게 되었다. 컴퓨터를 고치는 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성남센터에는 약 23명이 모여 일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 100여 명 정도가 봉사한다.

2004년부터 이 일을 시작한 박관삼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곳에서 쉬는 사람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이곳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국제결혼 및 출입국, 의료 문제, 장례 등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건강과 의료, 교회와 쉼터, 교육 문화 행사, 공동체운영, 제도개선 등을 한다. 쉼터 운영을 위해서 성남시청에서 공공근로자 파견, 농림부에서 정부미 염가제공, 잠실제일교회를 비롯 20여 개 교회에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300여 명 회원이 돕고 있다.

이곳에서는 달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신문을 만들고 있다. 또한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의료 봉사도 한다. 얼마 전에는 화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을 찍어가서 초상화를 그려 주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이다.

이지원, 박예은 기자 (금빛초 5, 6)

서해안의 슬픔, 원유유출

지난 12월 7일(금), 서해안에 원유가 유출되었다.
유조선이 해상 크레인과 부딪혀서 쏟아낸 1만 500t의 원유는 푸른 바다의 대부분과 모래사장과 양식장을 덮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많은 봉사자들이 원유 퍼내는 일을 돕고 있지만, 아직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만큼 많은 양의 원유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은 둘로 나누어 기름을 퍼내고 있다.
첫째, 바다에서 퍼낸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기름을 퍼내기 위해서는, 뜰채와 흡착포가 필요하다.
먼저 바다에 흡착포를 던져놓고 뜰채로 흡착포에 묻은 기름덩어리를 건져내어 양동이에 넣는 일이다. 쉽게 보여도,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어 결코 쉽지 않다.

둘째, 갯벌(모래사장)에서 퍼낸다. 황금색으로 빛나던 모래사장이 검게 변해 버렸다. 바다에 있던 원유가 밀물에 밀려서 갯벌까지 와서 바위, 웅덩이 등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썰물 때 바위 속이며 웅덩이 속, 모래사장 속을 삽으로 파서 기름을 퍼내야 하는데, 밀물이 되면 다시 바다의 원유가 들어오므로, 끈기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서해안의 원유유출 사고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서식하던 45여 종의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래의 바다로 복구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니, 양식업자들, 어부들, 서해안의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
직접 사고현장에서 복구를 도울 수 없더라도, 헌 옷이나 방제복 등을 보내주거나 '원유유출 피해성금'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선한 해산물을 얻고 깨끗하고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예전의 바다로 되돌려 놓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도와야 한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홈페이지 taean.gr.kr을 참고하거나 태안군청 재난상황실(041-670-2643, 2653)로 연락하면 된다.

오시영 기자 (금빛초 5)

2007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성탄절을 맞아 2007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을 펼쳤다. 올해는 한국청년센터, 희망의 천사본부, 광주청년 나눔센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의 단체로 구성된 2007년 몰래산타 준비위원회가 진행을 맡았다. 몰래산타는 약 5-6명이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각각 4-5개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저녁에 산타복장을 한 몰래산타들이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조부모 가정 등을 방문했다. 몰래산타들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직접 마련한 선물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지원 기자 (금빛초 5)

겨울철 감기 예방과 극복

✚감기와 증상

감기는 아이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질환 중의 하나로 환절기만 되면 자주 걸린다. 감기는 외부의 기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오싹 춥다고 느끼거나 콧물이 좀 나고 코막힘이 생기는 것이 감기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감기는 인체의 생명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에게 이로운 증상이다.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체는 외부의 나쁜 기운들에 방어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감기는 대부분 1주일 정도 앓는다. 그 기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감기가 아닌 다른 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엄마에게 받은 면역력이 강해서 잘 걸리지 않지만 이후 5-6세까지는 자주 감기에 걸린다. 이 시기는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여서 스스로 면역물질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기를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민간요법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감기를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

아침 저녁 서늘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 몸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하고, 피로하다면 그때그때 풀어줘야 한다. 몸을 청결하게 하고 땀에 젖은 옷을 입지 않아야 한다.

또 무엇보다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 감기를 치료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목욕은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해야 하며, 비타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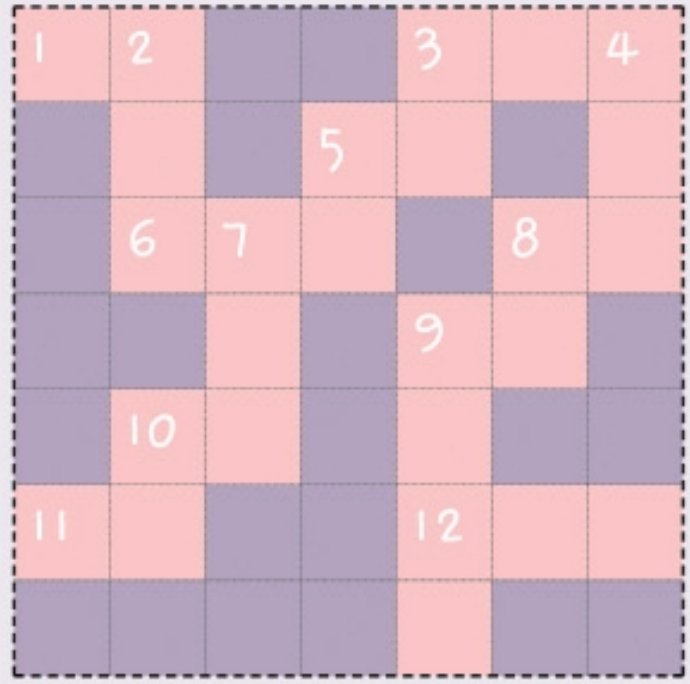
보리차, 과즙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실내습도를 50~60%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귀현 기자 (금빛초 5)

퍼즐

알쏭 달쏭 퍼즐 여행

김승민 기자 (금빛초 5)



가로풀이

1. 관련성이 없이 서로 다름.
3.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
5.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6. '국가정보원'의 전 이름.
8.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
9.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10.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 외교 · 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
11.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
12. 수증기가 찬 기운을 받아 물방울을 지어 엉기다.

세로풀이

2. 고쳐 바로잡은 안건. 또는 바로잡을 안건.
3.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고 매우 멀다.
4.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
5.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7. 주로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는 서력기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일컬음.
8. 바람과 조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바람에 따라 흐르는 조수.
9.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10.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4호 편집회의 11월 28일

11월 28일 3호 평가회를 마친 후 바로 4호 편집회의를 했다. 인물탐방인 '우리동네사람' 꼭지 취재원을 다도인 한경희 씨로 결정했다. 한경희 씨는 부편집장 전은지의 어머니다. 지난 1호 '만들어봐요' 꼭지 기사의 '가을에 마시는 차와 다식' 을 은지가 썼는데 그때 어머니의 도움이 컸다고 은지가 말해서 은지 어머니가 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은지 어머니를 취재하기로 했는데 4호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과의 동행취재와 기사를 통해 은지 어머니의 차에 대한 사랑과 예절이 남다름을 알았다.

명소탐방 '보GO! 즐기GO!' 꼭지는 1호부터 3호까지 역사탐방을 하였으니 4호는 꼭지 이름대로 '보고 즐길 만한 곳' 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회의 시 취재 장소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남에서 '보고 즐길 만한 곳' 을 찾기란 쉽지만은 않다. 식상한 장소여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 교육적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회의를 참관한 성남문화재단 이종필 씨의 제안으로 율동공원 내에 있는 '책테마파크' 로 정할 수 있었다.
'책테마파크' 취재 당일 은하와 혜빈이는 너무 좋다며 계속 이 방향으로 취재 장소를 선택하자고 제안했으나 성남에 이런 장소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다.

한울신문은 매달 27일에 발간된다. 한 달을 앞서가는 기사를 써야 시의성에 맞는다. 그 이유로 4호인 12월호는 신년 1월호와 같기에 '네컷만화', '포토에세이' 의 주제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정했다. 또 7면의 '마을의 한 달' 꼭지는 12월 28일 금빛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날이어서 겨울방학 동안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은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 에 초점을 맞추고 기사를 썼는데 12월에 갑작스럽게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가 일어나 마감 전 담당기자인 오시영의 제안으로 원유유출에 대한 기사 '서해안의 슬픔' 이 실렸다.

인물탐방인 '우리동네사람' 꼭지 취재원을 다도인 한경희 씨로 결정했다. 한경희 씨는 부편집장 전은지의 어머니다. 아이들과의 동행취재와 기사를 통해 은지 어머니의 차에 대한 사랑과 예절이 남다름을 알았다.

4호 교정 보던 날 12월 22일

12월 22일 교정을 보기 위해 금빛초등학교에 모였다. 그런데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모두 닫혀 있다.

경비아저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경비실 숙소 창문에 붙어 있던 전화번호도 보이지 않는다. 날씨는 춥고 시간은 자꾸 갔다. 박영실 디자이너가 오기 전 아이들과 기사 원고 교정을 봐야 아이들이 기사쓰기 학습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장소를 이동하기로 했다. 날씨라도 따뜻하면 밖에서 모임을 가져도 상관없을 테지만 너무 추운 날씨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토요일에 회의실 사용 허가를 해 주면 좋으련만 원칙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이들과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아이들 학원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이다. 선화 같은 경우도 학교 끝난 후 학원 가기 전 1시간 혹은 2시간(요일마다 다르다)을 알뜰하게 사용하여 취재해 왔다. 취재하다 늦어져 학원 강사에게 혼난 적도 여러 번이었다. 불쾌하게도 한울신문 기자 활동하는 것을 "취미생활도 좋지만 학원은 늦지 말라"며 혼을 냈다고 한다. 아이들이 기자 활동을 하며 배우는 것이 어디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비교가 될까마는 현실이 그랬다.

추운 날 밖에서 시간 낭비할 수 없어 태평4동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댁으로 가기로 했다. 지금은 두 분만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내가 사용하던 방이 예전 모습 그대로 있다. 박영실 디자이너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전달하고 아이들과 같이 원고 교정을 보았다. 경비아저씨의 부재로 아이들과 또 다른 추억 하나를 더 만들었다.

한울신문, 영상뉴스 발표회 및 학부모 간담회

12월 2일 저녁 6시 금빛초등학교 4-6반 교실에선 한울신문 기자 8명, 영상뉴스 기자 7명, 학부모 15명과 한울신문 발행인 박건화, 김성수, 편집인 박연우, 디자이너 박영실, 영상뉴스 이상훈이 참여하여 발표회와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참관인으로는 태평4동 유광영 동장, 정종삼 시의원, 최성은 시의원이 참석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작업해 온 결과물을 발표하고 결과물에 대한 토론과 향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를 논의한 장이었다.
한울신문 김귀현 기자의 아버지 김정식 씨는 아이가 기자활동 하는 것은 알았지만 신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몰랐다며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오시영 기자의 어머니 최정란 씨는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글쓰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영상뉴스의 김민지 기자 부모는 "영상팀인지도 몰랐는데 이 자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아이가 활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어머니 최정선 씨는 "아이가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뿌듯해하며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분해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신문발간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참관한 정종삼 시의원은 "언론이 제일 영향력이 있는데, 태평4동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조직이 한울신문일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조직' (?)이라는 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학부모 간담회가 다채로운 발표로 관심이 고조되어 갈 때 김성수 발행인이 후원회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참석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후원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차후 지역주민과 학교와 아이들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과 신문을 만들어낼 자금 조달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 프로젝트 기획단의 구체적인 단계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꿈꾸는 아이들'

'취재는 2시간 30분, 기사쓰기는 25분.' 취재원의 취재 협조가 잘 안 되어 취재 일정은 미뤄지고 마감은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마감일 때마다 입 안이 헌다는 예은이가 4호 미담기사를 올린 후 카페에 쓴 말이다. 거기에 몇 마디 더 거들고 싶다. '기사거리 찾기 1년 365일, 취재원 선택에서 취재일정까지 2주, 취재는 2시간 30분, 기사쓰기 25분, 기사읽기 5분, 제목만 읽기는 5초.'

세인들이 보기에 몇 줄 안 되는 기사가 뭐 그리 어렵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몇 줄 안 되는 기사에는 기자가 노력한 숱한 시간이 숨어 있다. 그래서 기자는 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이 쓴 기사가 활자화되어 신문이 만들어졌을 때의 희열과 누군가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위로 삼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데 조금의 보탬이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기자는 견딘다.

지난 2008년 1월 5일 한울신문사 시무식이 있었다. 그날은 6학년인 예은이와 선화의 송별회이기도 했다. 그들이 명예기자로 남을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지난 5개월 간 쉬지 않고 달려와 중학생이 되는 그들은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소명의식만을 갖고 무보수로 머리 한 쪽 귀퉁이엔 365일 기사거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 꿈이라 할지라도 아이들과 같이 꿈꾸고 싶다. 꿈꾸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바통을 넘겨 주어 새로운 아이들과 새로운 꿈을 꿀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이 모여 살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태평4동이 될 때까지 함께하고 싶다.

2008년 1월 현재 '꿈꾸는 아이들'은 '한울—큰우리(we)'가 되기 위해 기사를 쓴

KIM SUNG SOO 2008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태평4동 한울영상뉴스기자단 활동

아이들과 낯선 첫 만남
첫 번째 교육! 사진으로 소통하기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작은 에피소드
캠코더, 쉽게 다루기
난생 처음 카메라를 잡다
영상읽기와 뉴스보기, 뉴스란 이런 거야
인터뷰 실습
야외촬영에 도전하다
레디~ 액션!(1)
레디~ 액션!(2)
레디~ 액션!(3)
레디~ 액션!(4)

글 사진 우장순

아이들과 낯선 첫 만남 8월 3일

낯선 얼굴의 아이들이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태평4동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이 2년 연속으로 시행되는 곳이다. 나는 금빛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영상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활동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았다.
우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 영상뉴스제작단 학생들을 모았다. 시작하는 시점이 여름방학이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8월 3일 금빛초등학교. 방학 중에 학교 선생님에게서 갑자기 연락을 받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몇몇은 부모님의 결정으로, 또 몇몇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몇몇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자세한 사업설명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영상뉴스제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9시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동영상으로 태평4동의 소식을 전달할 친구들을 찾아요. 그리고 함께 배우고 재미있게 영상뉴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참 매력적인 경험이 아닐까요? 여러분, 꼭 도전하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뉴스제작단에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다.

그날, 아이들 무리 속에서 좀처럼 어울리지 않은 학생(?)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태평4동에 어린이뉴스기자단이 탄생한다는 소식에 도대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아이와 함께 온 학부모님이셨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다.
"참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 같아요.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지만 않으면 꼭 시키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결국 아이는 함께 활동하지 못했지만,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게 큰 격려의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 꼭 동혁이도 같이 할 날이 있겠죠? 어머님.

첫 번째 교육! 사진으로 소통하기 8월 7일

약속한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 가르듯 아이들은 남자, 여자로 자연스럽게 나뉘어 앉았다.

흑백사진 50장을 책상 위에 펼쳐 놓고 맘에 드는 사진을 골라보라고 했다.

"그 사진은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 걸까?"

"이 사진은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개그맨 이경규 닮았어요. 그래서 웃겨요."

"예쁜 고양이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 사진을 찍은 사람도 아마 너와 같은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을 거야.'

"현아도 같은 상황에서 사진기를 들고 있었다면 셔터를 눌렀을까?"

"그럼요~ 하하."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선택한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얘기하고, 5명씩 또는 7명씩 모둠을 지어가며, 사진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다. 생활을 기록하고, 인물을 담고, 풍경을 찍는 순간에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관찰했고, 또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왜? 앞으로 우리가 할 작업의 시작이니까!

뭐가 그리 창피한지
사진기를 들이대면
아이들은 그 작은 사진 뒤로 숨는다.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작은 에피소드 8월 11일

처음 교육장소로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과 약속한 두 번째 날,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건물의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닌가.

먼저 도착했던 아이들은 흩어져 있고, 환이는 문이 잠겼다고 집으로 돌아갔단다. 한참 동안 아이들 집으로 전화하고, 학교를 뒤져 아이들을 끌어 모았다. 환이는?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왜 혼자 들어왔냐고 어머님께 꾸중을 듣고는 투덜투덜 우리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시 와야만 했다.
더운 여름날이라 적지 않은 짜증이 날 법한데 다행히 기자단 친구들은 선생님 걱정을 먼저 했다. 기특한 녀석들…….

마침 '늘봄' 사무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이동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늘봄 사무실에는 영상교육을 진행하기에 적당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컴퓨터, 대형 모니터, 빔 프로젝트, 영상기자재 등등. 단지 에어컨이 없을 뿐. 더운 날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태산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학 중 토요일은 늦게 개방한단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찍 만나 교육하려 했던 내 욕심이 자칫 초반 교육 흐름을 망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송채연

김민지

이주형

이환

정준

이은지

조희원

김현아

선생님 사무실이 더 좋아요~

기자단 친구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오늘부터 교육장소를 공식적으로 이동했다. 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교육실로.

"이 캠코더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다!"
"얼만데요?"
"200만원도 넘어."
"그럼~ 이거 나 줘요!"
(^^;;) 땀 난다.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다루기 전에 소중한 물건임을 알려 주려고 꺼낸 말인데……. 그래도 내 말을 알아들은 듯, 기자단 친구들은 카메라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하긴 만져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 하하

간단하게 비디오 카메라의 작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만져보게 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직 · 간접 체험을 해야 진짜 학습이 된다.

아이들은 카메라를 만지작 만지막거린다.

"음~ 이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촬영은 카메라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얘기하고 싶었다.
"비트박스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누가 말했지? 북치기 박치기. 영상촬영 역시 두 가지만 알면 돼. 바로 전원 넣기와 녹화하기!"

난생 처음 카메라를 잡다 8월 18일

실제 촬영실습을 하는 날이었다.

지난 교육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영상 자료를 보여 주며 교육을 정리하려는데,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교재에 나오는 교사의 목소리가 너무 느끼하다나…….
아무튼 계속해서 집중이 되질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은 계속되었다.
결국에는 소리를 없애고, 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직접 목소리로 설명을 진행했다.
영상교재가 자기 몫의 역할을 하질 못하니 교사의 목이 고생이다.

다음으로 '교육실'이라는 주제를 갖고, 아이들에게 촬영 실습을 주문했다. 각자 본인들이 느끼는 '공부하는 곳-교육실'을 영상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 이론과 실제가 교차하며 작은 혼란을 불러온다.
"선생님, 이거 배운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한편, 난생 처음 카메라를 잡아보는 것도 어설프지만, 비디오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어려운가 보다. 저마다 카메라를 피하느라 교육실이 난장판이 되었다. 찍으려는 자와 찍히지 않으려는 자들의 난장판.
다행히 아이들은 절충안을 만들고 이내 정리가 되었다.
"야! 옆 얼굴만 찍기로 했잖아!"

영상읽기와 뉴스보기, 뉴스란 이런 거야 8월 21일

뉴스란 무엇일까? 우리가 태평4동의 어린이 기자들인데 무엇을 취재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뉴스의 제작과정에 대해 프린트 교재를 준비했다. 간단하게 읽어본 후, 뉴스를 만드는 과정,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진행했다. 우리가 TV로 보는 것은 최종 결과물이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이론 공부를 끝내고 실습과정에 들어갔다. 역할 배치를 하는데 의외로 다양한 영역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카메라, 아나운서, 기자 등 눈에 보이는 역할 이외에도 총 책임을 져야 하는 연출과 음향까지 교사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내 각자의 역할에 맞는 내용을 정리했다.
전체적인 취재의 주제는 "태평4동에 어린이영상뉴스제작단이 떴어요!"였다.
아나운서, 기자는 자기 멘트를 정리했고, 카메라는 기자의 위치를 잡고 삼각대를 펼쳤다. 중간중간 안 풀리는 부분은 총괄PD를 맡은 6학년 주령이를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교사가 놀 수는 없는 일. 자질구레한 심부름부터 멘트 다듬기까지는 교사의 몫이다.

1. 뉴스의 이해를 돕는 영상교재를 시청하고 있다. 2. 아나운서를 둘러싸고 카메라를 점검 중인 스텝들. 3. 음향팀은 컴퓨터로 소리를 잡는다. 주령이를 중심으로 최종 멘트를 정리하고 있다. 4. 김현아 기자는 왼쪽에서 멘트를 외우고 있다.

인터뷰 실습 8월 25일

영상뉴스의 장점은 생생한 현장을 담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바로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에서 '인터뷰'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우선, 2인 1모둠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알고 싶은 점 3가지를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 기자단 친구들은 사무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 설치하고 모둠별로 질문자와 대답하는 사람을 바꿔가며 실습을 진행했다. 준비하는 시간을 성의 없이 보낸 녀석들은 질문의 내용이나 대답이 거의 장난 수준이었고, 그래도 준비를 잘 한 녀석들은 의외로 좋은 질문들을 생산하기도 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죠?"
아직도 카메라가 낯선 데다가 인터뷰까지 당하는(?) 바람에 아이들 얼굴이 경직되고, 뻣뻣한 미소까지 내 예상보다도 더 힘든 표정들이다. 물론 지켜보는 나는?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무척 재미있을 수밖에. ^^

야외촬영에 도전하다 8월 27일

연출 : 이주령, 김민지
기자 : 김현아
촬영 : 정준, 조희원
소리 : 이환, 홍승우

영상뉴스기자단의 첫 야외실습촬영을 위한 역할 배치다.
일단, 필요한 역할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은 교사인 내가 얘기했고,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역할을 욕심껏 맡기도 했고 별 욕심이 없는 친구들이 사운드 역할을 맡았다.
촬영 장소는 아이들이 다니는 금빛초등학교로 잡았다. 친구들의 방학생활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과제였다.

미리 반 친구들 중에 1명 이상을 섭외해서 손 잡고 모이기로 약속했지만, 기자단 8명은 모두가 혼자였다. 그래도 모인 게 다행인가? 친구들이 집에 가기 전에 재빨리 섭외해야 했다.
기자단 8명은 친구들 섭외한다고 우왕좌왕, 섭외한 친구가 간다고 우왕좌왕, 인터뷰 장소를 결정할 연출자들은 의견일치 결정권을 교사에게 넘기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4명의 친구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레디~ 액션!(1) 10월 8일 | 금빛초등학교 체육대회

첫 뉴스로 기자단 친구들이 잘 알고, 편하게 취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금빛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의 체육대회가 열린다. 너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사에 대해 알고, 참여하겠지만 그 행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취재계획을 짜도록 하자."
한 번, 두 번 만나서 취재계획을 짜도록 유도했다. 기자단 친구들에게는 처음 하는 것이라 많이 어설프고,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다.
최대한 교사의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교사가 개입하는 순간, 아이들은 주체가 아닌 객(客)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자단 친구들은 어렵게 취재계획을 마무리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연출자와 카메라, 인터뷰를 담당할 취재기자까지 역할을 나누었다.
체육대회에 참가해야 할 주체이자, 동시에 취재를 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아이들은 더욱 바빴다.

첫 취재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쉴 틈이 별로 없었다. 계속해서 행사는 이어지고, 영상촬영을 맡은 주령이, 민지, 희원이는 쫓아다니기도 힘들어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내내 함께 뛰며, 옆에서 도움을 주고, 때로는 직접 촬영도 맡았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행사도, 취재와 촬영도 마무리되었다. 물론, 촬영 결과물의 퀄리티는 장담할 수 없다. 왜? 아직 우린 초보잖아.

첫 취재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쉴 틈이 별로 없었다. 계속해서 행사는 이어지고, 영상촬영을 맡은 주령이, 민지, 희원이는 쫓아다니기도 힘들어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내내 함께 뛰며, 옆에서 도움을 주고, 때로는 직접 촬영도 맡았다.

가을운동회의 꽃 - 부채춤 공연

금빛초 가을운동회열려

6학년 김혹희선생님 인터뷰

장애물 달리기

레디~ 액션!(2) 10월 27일 | 동네 속으로

"선생님~ '동네탐방' 섭외했어요."
"어디?"
"종로떡집이요."
"거기가 어딘데?"
"가보면 알아요.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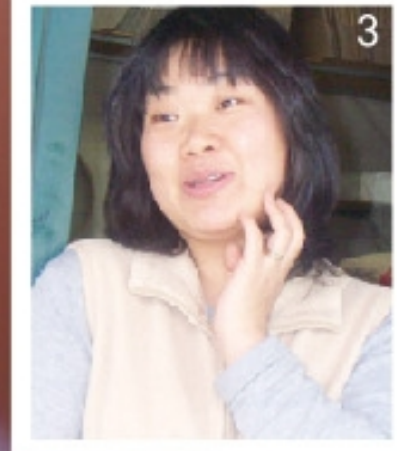
'동네탐방' 이라는 꼭지를 정하고, 별다른 뉴스거리를 찾지 못해 걱정스럽던 상태였다.
회원이가 한 건했다.
평소에 어머님이 잘 다니는 떡집이란다. 오늘 모임에 오는 길에 생각나서 가게에 들러서 허락받고 왔다고 했다.
모두 8명의 제작단이 출발했다. 취재에 너무 많은 인원이긴 했지만 교육의 측면도 있고, 더불어 '영상으로 보는 태평4동의 가을' 을 준비하는 영상물은 지속적으로 촬영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역시 초보 기자들에게 가장 서투른 부분은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우리가 방문한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까지는 잘 했는데 인터뷰 질문에서 막혔다. 뭘 물어봐야 할지 아이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교사가 개입해야 할 상황이 왔다.

"얘들아, 우린 기자야. 기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종로떡집에서 어떤 소식거리를 찾아서 전달해야 할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교사가 직접 인터뷰를 시도하고 촬영해야 했다.

"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나누세요?"
"글쎄다, 답은 없지. 그냥 선생님이 너희들보다 더 많이 보고, 경험했다는 차이일 뿐!"

어쨌든 인터뷰가 질문과 답의 순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주 편하게 동네 이야기며, 가게를 하면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바로 인터뷰라는 것, 우리 제작단 친구들이 오늘의 경험으로 더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동네탐방 촬영을 위해 취재원에게 사전 인터뷰를 통해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2. 진열된 떡 촬영결과물
3. 종로떡집 주인아줌마는 아이들의 잦은 실수를 웃어주시며 촬영에 응해주셨다.
4. 즐겁게 촬영 중인 희원, 민지.



레디~ 액션!(3) 10월 | 영장산공원의 색다른 변화

오늘은 영장산 공원에 색다른 변화가 생기는 날이다. 영장산 공원은 태평4동 주민들의 산책길과 쉼터로, 동네 어르신들이 운동을 겸할 수 있는 배드맨턴장과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성남의 젊은 미술작가들이 모여 벽화를 그린다는 제보(?)를 받았다. 우리 어린 기자들에게 사전에 약간의 행사내용을 소개해 주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카메라맨은 희원이와 준이가, 취재는 은지, 사운드는 환이, 전체 진행을 총괄하는 연출에는 주령이와 민지가 맡았다.
장비를 챙긴 우리 일행은 서둘러 공원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작가들이 일찍부터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벽화작업이 마무리되는 벽과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는 벽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뉴스제작단 친구들도 벽화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을 섭외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팀과 촬영 준비를 할 팀으로 나누어 움직였다. 일단, 본 취재가 시작되면 작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교사는 최대한 구경꾼의 위치에 서려고 노력한다. 그래야만 기자단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생적인 노력과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침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분들을 인터뷰 섭외했고 질문지 역시 쉽게 정리했다. 촬영 팀은 위치 선정과 프레임 결정을 끝낸 상태였다. 곧이어 전경 촬영과 작업 과정에 대한 촬영을 잘 마무리짓고 작업책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성남비행장에서 열리는 에어쇼를 준비하는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비행연습을 하는 탓에 인터뷰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발생했던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결과물을 컴퓨터로 확인하고는 재촬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긴급회의에서 자발적으로 희원이가 촬영을 지원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 믿어주면 그만큼 보답하는 자세가 고맙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점점 깊어간다.

영장산 공원 안에 있는 배드맨턴장과 게이트볼장의 새단장 소식을 담은 화면을 캡쳐했다. 성남의 젊은 미술작가들이 벽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인터뷰, 이곳을 보고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등을 담았다.

레디~ 액션!(4) 11월 8일 | 태평4동 나들이

어째 좋은 뉴스거리를 찾아보았지만, 워낙 태평한 동네라. 하하. 무작정 카메라 두 대를 짊어지고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섰다. 마침 계절도 가을이라 나들이하기엔 적격이었다.
파란 하늘을 벗 삼아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시린 손 비벼가며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곧이어 등장하는 낯익은 풍경들이 우리 일행을 반겼다.
"얘들아, 너희들이 기억하는 태평4동의 풍경을 담백하게 담아보는 거야~"
이번 뉴스거리는 태평4동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코너로 결정했다.
그냥 스쳐지나는 풍경들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또 다른 맛이 있다.
동네 곳곳을 다니며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뜻 깊은 작업이 될 것이라 믿었다.

"앗! 선생님, 우리 저거 찍어요."
"뭐?"
"저 집이요~"
"희원이는 왜 저 집을 찍고 싶은데?"
"그냥 다른 집과 좀 색다른 맛이 있잖아요."
"음, 좋아. 너에게 그런 느낌이 있다면 카메라에 담아봐라."

이렇게 아이들은 저마다 느낌으로 카메라에 태평4동을 담기 시작했다. 약속한 2시간은 너무 짧았다. 학원 가야 할 친구들을 보낸 우리 일행은 계속 촬영을 했다.
골목길 풍경, 지나가는 마을버스, 행인들의 얼굴, 태평4동의 명동길 풍경, 영장산의 단풍,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김장 담근 항아리, 골목길에서 만난 절묘한 주차 솜씨(?), 산행을 하는 사람들,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우리 동네…….

웬만한 도시 풍경에서는 찾기 힘든 것들이다. 아이들은 눈치 챘을까? 태평4동 골목길 곳곳에 동네 사람들의 삶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을.

태평4동
한울영상뉴스

- 태평동의 가을(영상뉴스)

촬영 : 김미지, 정주, 이환 기자

KIM SUNG SOO 2008

나가기

기자들의 한 마디
한울신문 영상뉴스 설문

기자들의 한 마디

한울신문 기자단

1. 기자란 빠른 발이다.
기자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빨리 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빨리 전해 주려면 빠른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올해 있었던 중요한 정보를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야 전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게다가 그때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기자로서 빠른 정보를 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이다.
2. 기자는 정확해야 한다.
기자는 정확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해 준다면 기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인데 대충 알아서는 "강아지가 죽었습니다"라고 기사를 쓴다면 사람들은 거짓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자는 아주 힘들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 주려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먼저 그 정보를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기자로서 지금 하는 일에 아주 만족한다. 계속 한울신문이 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싶다. | 오시영

기자는 정확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이고, 빨리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기자가 아닌 사람도 여러 가지 소식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여러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 기자는 뛰어다니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 기사를 쓴다. 기사를 쓸 때에도 주의 깊게 쓰지 않으면 결코 좋은 기사가 될 수 없다. 기자는 쉬운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쓴 내용이 신문에 나오면 뿌듯하다. | 김귀현

기자란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일 빨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기자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문이 나오면 나 자신이 뿌듯해진다. 취재를 다니는 것이 힘들지만 신문이 나오면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이 생긴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는 각오를 해본다. 한울신문사 화이팅! | 이지원

기자란 우리동네 또는, 다른 동네에 있었던 일을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 자신과 읽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다.
또, 기사를 쓰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지 기사를 보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야 기사를 쓰는 사람이 더욱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 오한홍

기자는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기사를 모으거나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사를 모으거나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사를 쓰는 기자입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는 기사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을 적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취재와 인터뷰를 합니다. 각종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기사에 참고하기도 하고, 취재원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직접 땀을 흘리며 뛰어다녀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사를 쓸 때에는 기자가 취재한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재를 가야하는데 게으름을 부리며 미루다가는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야 해서 기자는 더 바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자정신에 책임감과 자신감,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없다면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취재시간에 늦으면 취재원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없고 취재원에게 매우 실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양심이 없다면 거짓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기사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쓰는 글인데 거짓된 정보가 있다면 안 됩니다. 또 자신감이 없다면 취재하는 일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되려면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해낼 수 있고 자신감 있으며 정직해야 합니다. | 김은하

기자는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항상 발로 뛰어가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또,기사 쓰는 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기자이다. 기자는 인간적 품성, 사회적 기능, 좋은 기사를 쓰기위해 항상 발로 뛰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감이 있고, 옳은 일을 위해 글을 쓰는 태도가 남다를 것이다. 또, 호기심이 있어야 무엇이든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할 수있다. 만약 자신이 호기심이 없다면 그 기사또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기사를 쓴 것보다 못하다. 물론 자신이 호기심이 없는것을 마음대로 호기심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한 번 정도라도 노력을 하면 자신이 싫어하는 분야도 좋아하는 분야로 만들 수 있다. 또, 기자는 항상 무엇이든 어떤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기자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많이 필요하고 부지런하고 끈질겨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정직한 것이다. 기자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인데 정확하지가 않으면 우리들은 정확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되는 것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13명의 한울신문 기자들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의 진심어린 마음을 생각해 주시면서 한울신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전지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할아버지께

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금빛초등학교에 다니는 전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오빠가 잘되도록 항상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평4동 어린이들이 힘을 합쳐 만드는 동네신문 한울신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호까지만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보니 끝까지 좋은소식을 전할 수있는 기회가 생겨서 끝까지 한울신문을 발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울신문 기자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과 글도 잘 쓸 수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울신문이 그다지 사람들한테서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한울신문이 끝까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태평4동에 살고 있는 전지혜 올림

한울영상뉴스 기자단

내가 직접 촬영도 하고, 뉴스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 기분 좋은 기억이었다.
영상뉴스라는 생소한 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게 괜찮은 점이라 생각한다. | 조희원

다른 친구들과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뉴스를 찍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동네에 대해 자세히 안 것 같다. 우리는 영상뉴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계속해서 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다. | 김민지

6학년이 나 혼자라 조금은 힘들었다(다들 내게 너무 의지한다).
뉴스를 찍으면서 나 자신도 동네에 생긴 새로운 일을 알 수 있다는 게 뉴스기자단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 이주령

내가 뉴스를 만들다니…….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서 아쉽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뉴스제작단의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 이은지

태평4동의 뉴스를 내가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미있는 추억이 많았다. | 송채연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친해진 점이 좋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 동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좋다. | 이환

한울신문, 영상뉴스 설문

12월 2일 한울기자단 학부모 간담회에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총 15명이 간담회에 참여했으며 10명이 설문에 답하였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꿈꾸는 아이들' '한울신문, 영상뉴스'와 함께해 주신 어린이 기자와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의 소식을 아이들의 눈으로 전하고자 시작한 태평4동 '한울신문, 영상뉴스'는 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3호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기자단의 학부모님과 여러 인사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그동안의 한울신문, 한울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함이니 부담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한울신문, 영상뉴스의 보도 내용에 대해 좋은 점, 고쳐야 할 점을 적어 주세요.

좋은 점

–가까운 이웃 이야기와 좋은 정보를 접하여 친숙함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이 참 좋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의 발자취도 돌아보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이곳저곳 다니며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서 애향심을 갖고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의 볼거리, 알 거리, 성남의 명소탐방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다.

–다양한 경험을 해서 좋고 꿈이 하나 더 생겨서 좋습니다.

–우리 동네의 이모저모, 친근한 사람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친근하고 정이 듭니다.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조금씩 성격이 변화되어가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태평동의 새로운 소식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개선점

–태평4동 주변의 이웃마을 이야기 연계도 필요할 것 같고, 눈높이를 어른, 아이 함께할 수 있는 신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여 신문 취재에 거부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반참여자 코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독자엽서코너 등).

2.어린이기자단 활동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 본 부모님의 입장에서 적어 주십시오.

-교육적 효과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 위주가 아니고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나누는 진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취재 다녀올 때는 저녁 늦게 오기도 해서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신문이 나오고 횟수가 거듭되면서 아이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는 의지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또 다른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커서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모르고 접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활동적이고, 좋아해서 좋고, 성남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점이 좋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재 대상을 정하고 기사를 써가면서 글쓰기 공부가 특히 많이 향상되었고 학교 숙제보다 취재 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듯(?)하며 즐겁게 생활하며 기사를 써서 엄마로서 대견스럽습니다.
-현장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마인드가 업되지 않을까요.
-의욕이 없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되어서 일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임감이 강해지고, 어떤 일을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을 끝낸 다음의 기쁨과 공동체 의식도 생긴 것 같고, 나보다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제일 많이 나아진 것은 글을 쓰겠다는 의지입니다.

3. 현재 한울신문은 월간으로 2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영상뉴스 또한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상에는 4호 신문까지가 제작 목표입니다. 한울신문, 영상뉴스가 지속되어야 한다면 왜? 어떻게 지속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계속 발전해서 전국의 마을 신문으로서 초석이 되길~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키움의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속돼서 아이들이 꿈을 갖고 성장하게 지켜줬으면 합니다.
-시, 동, 학교가 연계해서 진행하고 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추억으로 남기기엔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기 힘든데 이런 기회로 아이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만 있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좋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호도 출간되었는데 지속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꼭 지속되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연장
–시작을 했으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 때까지는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또 아이들에게 확실한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 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부모들의 후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4. 한울신문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동네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기자단이 지속된다면 자녀들을 어린이 기자로서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예 10명/ 아니오 0명

5. 한울뉴스는 '태평4동의 모든 주민이 기자다' 라는 취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제보와 독자 투고란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10명/ 아니오 0명

6. 한울신문이 만들어지고 난 후 주변에서의 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십시오.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다들 좋은 평가입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던데요.
–아직은 어린 초등학생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죄송스럽지만 아직…….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태평4동 소식지가 없는 상태에서 신문이 나오니 너무 좋다고 합니다.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7. 한울신문 기자 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십시오.

–평소 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험이 산 교육으로, 학업이 아닌 지혜가 넘치는 영향을 받길~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도 알게 되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배경을 알게 되어 좋습니다.
–좋은 공부를 해서 좋습니다(다양한 실생활을, 모르는 분야를 접해서).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3호가 출간되는 동안 실력이 늘었는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상부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활동에 대해 감사합니다.
-글쓰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8. 한울신문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문제작 기금 등, 많은 후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울신문 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10명/ 아니오 0명

필요하다면 학부모님께서는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10명/ 아니오 0명

9. 어린이 기자단 활동에 대해 학부모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아이들이 좋아해서 좋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더 많이 참여하여 좀더 다양한 신문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홈페이지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단 여러분, 멋집니다.
-좋은 지역 소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선생님들께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성수(태평4동 어린이 기자단 '꿈꾸는 아이들' 총기획)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속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태평4동 통장협회의회 주최의 어린이기자단 '꿈꾸는 아이들'의 프로젝트 결실이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문과 영상뉴스를 만들기 위해 그간 흘려온 땀방울의 무게를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적 시도를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모두들 궁금해 했습니다. 하나의 행정적 동네를 문화적으로 묶어내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웠구요. 또, 재정지원이 중단된 이후 지속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았던 일입니다.

한울신문은 태평4동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만드는 동네신문입니다. 하지만 독자는 태평4동 주민 전체이지요. 아이들이 만나고 취재하는 대상은 태평4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달간의 힘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몇 번이고 퇴짜 맞은 원고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며 하나의 기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울뉴스는 아이들이 만드는 태평4동만의 영상뉴스입니다. 비록 시작은 엉성했지만 한 편 한 편 만들어지는 뉴스가 골을 갖추며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의 눈가에 흐뭇한 미소가 흐르게 만들었지요.

한울신문과 한울뉴스가 태평4동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차곡차곡 아이들의 꿈이 영글어가는 만큼 우리 동네도 살맛나는 동네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애초부터 일회성 사업이었다면 시작하려고도 안했겠지요. 하지만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신통하게도 궁하면 통하는 법인가 봅니다. 문화재단의 도움을 얻어 홈페이지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뉴스를 소통할 공간이 없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홈페이지는 일상적으로 마을뉴스를 접할 수 있고, 동네 이야기들을 담아 나가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도 기사쓰기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이 기자가 되는 것이지요.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한울신문, 한울영상뉴스 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후원금은 한울신문 발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는 재정후원에만 그치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취미별 기호별 동아리로 묶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 꿈 크기만큼은 아니어도 그 꿈의 손톱만큼만 해 보려구요. 한울신문과 한울뉴스는 이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의 소통공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아리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기차고 재미있는 놀이판이 되는 거지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마을축제를 벌여보면 또 어떨까요? 문화적 상상력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더군요. 한울신문은 태평4동 문화공동체의 허브가 될 겁니다. 이쯤되면 우리 아이들이 태평4동에 공동체적 문화향기를 일구는 돌격대인 셈이네요.

한울어린이기자단은 일회성 프로젝트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모두 동의가 되시나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을 우린 가 보려 합니다. 설사 이 문화적 시도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꿈만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THE

도와주신 분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금빛초등학교, 늘봄, 성남문화원, (사)성남 민미협, (사)성남 민예총, 우리함께웃는 지역아동센터, 외국인 노동자 쉼터, 작은사랑 성남지역아동센터, 참사랑의 집, 태평4동 동사무소, 태평4동 주민생활 지원팀장 이귀완씨, 태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취재요청에 쾌히 승낙해 주신 태평4동 주민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2차년도
'한울신문-영성뉴스'

꿈꾸는 아이들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